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지역사회 통합 사역 필요”

미래목회포럼, '이주민 정책의 동향과 교회의 역할' 주제 포럼 진행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이 이주민 정책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오찬포럼을 개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이주민 정책의 동향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오찬포럼을 열고, 국내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이주민 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사회적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동향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인환 목사(함께하는교회, 다문화·이주민사역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충만 목사(하늘비전교회, 중앙위원)의 기도에 이어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담임)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전문가 강연과 사례 발표, 논란 순으로 진행되며 이주민 정책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주민 증가 현실 속 한국교회의 역할 강조

인사말을 전한 황덕영 목사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일상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상당수가 이주민으로 구성 되어 있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황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주민을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또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률 지원과 언어 교육, 문화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사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체계적인 이주민 사역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구구조 변화 속 이민정책 동향과 국제 흐름

강연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박사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박사는 국제 이주 흐름을 설명하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주가 많고”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이 노동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또한 2024년 이후에는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 인구 증감보다 이민이 전체 인구 규모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박사는 “많은 국가들이 인구 위기에



행사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민정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감소한 인구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이민 규모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OECD 국가의 약 3분의 1은 국가 전체 생산성 증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장소 기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소 기반 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하며 “이민자들은 지역 평균보다 젊은 연령대가 많아 고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정책 수요에 따라 인력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또한 이민자들이 지역의 새로운 투자자이자 경제 주체가 될 가능

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가 이민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그는 화성 아리셀 참사를 언급하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을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가 이러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사회 통합 위한 외국인 지원 정책 사례

이러한 사례 발표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주민 지원 정책과 현장 활동이 소개됐다.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 주요사업과 지역사회 통합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한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센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음성군이 특유의 인구 구조와 산업 생태계로 인해



오찬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또한 “지역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다문화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됐다”고 밝혔다.

현재 음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는 31개의 산업단지과 약 3,300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 1만 8,559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음성군 전체 인구의 약 19.4%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 센터장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 공동체가 형성

되어 있다”며, 센터의 비전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다문화 공존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선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미래 전략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리이즈(RISE) 공동체 사업 추진, 외국인 주민 통합 거점센터 운영, 충북 고령인 지원센터 추진, 세계문화 공존 도시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다문화 공존을 넘어 글로벌 학습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포용적 협력,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 변화와 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류지호 대표가 ‘의정부 이주노동자센터의 활동 사례’도 소개했다. 이후에는 장이규 목사(천호제일교회, 실행위원)와 양신 목사(안성제일교회, 중앙위원)가 논찬을 진행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이상대 목사(서광교회,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이상대 목사는 “미래목회포럼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한국교회 안에서 이주민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여안추 “예장 합동 헌법 개정안, 여성 안수 길 막는 계약”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여안추)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공간이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개정 필요 없다! 여성 안수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여안추 수추진운동(여안추)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성 목사, 예장합동)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여성 목사 안수의 길을 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예장합동은 오는 4월 전국 165개 노회에서 헌법 개정안 수의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와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제 111회 총회에서 최종 하락되면 시행된다. 지난해 제 110회 총회에서 결의된 이 개정안은 여성에게 ‘목회자 후보생 고시 응시

를 허용하는 대신 목사 자격을 ‘만 29세 이상 남자’로 명시해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고 강도사로서 설교 사역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안추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여성의 강도사과 목사 직분 제한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헌법 제4장(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신학대학원 졸업생이 총회 고시와 노회 인허를 거쳐 강도사가 되고, 이후 일정 기간 수련 뒤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말한다던 헌법 개정 없이도 여성에게 강도사 고시를 허용할 수 있다”며 “같은 과정을 거

친 목사 후보생 가운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합동 교단은 여성 안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적은 없었지만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며 “여성에게 강도권만 허용하고 목회 안수를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여성 목사 안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권만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안수 자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유미 박사(비블로스성경인문학연구소장)은 여성 안수 반대의 근거로 제시되는 디모데전서 2장 12-15절과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대해 “당시 교회 상황과 문맥을 고려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디모데전서 구절에 대해 “당시 영지주의 영향으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지배를 주장하는 사상이 확산되자 교회 내 혼란을 막기 위해 바울이 경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고린도전서 구절에 대해선 “당시 여성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이 예배 중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 질문과 대화로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한 권면”이라며 “이 구절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맥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말했다.

여성 사역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호소했다. 최성희 전도사는 “그 동안 여성 신학생들은 강도사를 거쳐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여안추 측 인사들이 피켓을 들고 시진행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갖고 준비해 왔다”며 “강도권만 허용하는 제도에 머물 경우 여성 안수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를 비롯한 여성 전도사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사라는 이유로 남성 후배 목사들에게 하대당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여성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부르신 사역자”라고 했다.

이러 “여성 안수가 통과될 경우 교회의 전도 동력이 강화되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사역자 역시 남성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존재”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여성에게도 목회 안수의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노형구 기자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로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로/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호주 시드니에서 국제성시화대회 열려

저녁집회, 성시화 세션, 십자가 대행진, 지도자 전략회의 등 진행

호주 시드니에서 국제 성시화 지도자들이 모여 도시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나눴다.

2026 시드니 국제성시화대회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호주 시드니 새순장로교회(담임 송선강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제20차 시드니 성시화 기념대회와 국제성시화대회를 겸해 진행됐다. 대회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했고 시드니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근 목사)와 시드니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회장 송기태 목사)가 공동 주관했다. "성령으로 시드니를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저녁집회와 성시화 세션, 지도자 전략회의, 다민족 십자가 대행진, 감사만찬 등을 진행했다.

첫날 저녁집회에서는 CTS부흥어게인의 찬양에 이어 이창호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의 대표기도, 안경선 선교사의 간증이 이어졌다. 설교는 강현식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평택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맡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축도는 송기태 목사가 담당했다.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는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기도

와 김원평 장로(한동대 석좌교수)의 간증 후 강현식 목사가 "성령의 권능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집회 마지막 축도는 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함께 했다. 강 목사는 설교에서 "성시화운동은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해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며 "1972년 김준곤 목사에 의해 시작돼 세계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중 시간에는 안경선 선교사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의 한센인 사역과 신앙 여정을 소개했고, 김원평 장로는 유물론자로 살던 삶에서 신앙을 갖게 된 이후 학문과 사회 영역에서 신앙적 소신을 지키며 활동하게 된 과정을 나눴다.

7일 오전에는 '성시화 세션'이 진행돼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석원 목사(국제기도공동체 대표)가 '주기도 십자가 영성'을, 한윤봉 전북대 석좌교수가 '성령의 과학적 권위'를, 김원평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백종석 목사(사산성시화운동 대표본부장)가 사산시 성시화 전도 전략을,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경쟁 전도법'을 소개했다. 안경선 선교사는 '손양원 목사를 통해 본 삼위



다민족십자가대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주강사로 저녁집회 말씀을 전한 강현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2026 세계성시화 지도자 전략회의에서 차기 국제대회 기를 전달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일체적 삶, 김남순 목회자연구소장은 '성경적 재정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7일 오후에는 세계 성시화 지도자들이 모여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국제대회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7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LA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국제성시화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8년에는 평택에서 국제대회를 열기로 했다.

8일 오후에는 벨모어파크에서 마틴플레이스까지 약 2km 구간을 행진하는 다민족 십자가 대행진이 진행됐다. 행사 당일 폭우가 내렸지만 한인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 내팔교회와 중국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했다. 행진 시작 직전 비가 그치면서 참가자들은 찬양과 전도지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행진했다.

행진 종착지인 마틴플레이스에서는 폭우로 인해 다른 단체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즉석에서 성시화 찬양기도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시드니성시화운동본부 고문 김종규 목사는 "하나님께서 성시화운동 사

역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9일 오후 시드니 바이킹클럽에서 열린 감사만찬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시드니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근 목사는 "2007년 김준곤 목사가 참석해 제1회 대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광고협, 내달 5일

'2026 광주광역시 부활절연합예배' 개최

광주 지역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석윤 목사, 이하 광고협)는 오는 4월 5일 오후 4시 광주순복음교회(담임 한상인 목사)에서 '2026 광주광역시 부활절연합예배'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고협은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3일 광주상록교회에서 제39회기 제10차 임원회의를 열고 예배 진행 계획과 세부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는 광고협이 주최하고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지역 5개 구 교단협의회가 함께 준비한다. 여기에 광주성시화운동본부, 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광역시장로교회협의회, 광주기독교단체인협회 등이 협력 단체로 참여한다.

예배의 주제는 '복음-연합-선한 영향력'으로 정해졌다. 설교는 광고협 직전 대표회장인 이종석 목사가 맡아 고린도전서 15장 12-19절을 본문으로 '부활신앙'에 대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예배는 광고협 수석부회장 나종갑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며, 상임부회장 김용



지난 부활절 예배 모습.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집 장로가 대표기도를 인도한다. 이어 서기 배정환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광주 지역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 설교 이후에는 광고협 회계 김제원 장로가 봉헌기도를 드리고, 광주장로찬양단이 봉헌 특송을 맡는다.

이날 예배에서는 남북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의 회복과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 국가와 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도 등 다양한 제목으로 특별기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 예배는 광고협 상임고문 문희성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된다.

이어지는 2부 순서는 '환영과 결단의 시

간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정석윤 대표회장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부활 신앙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를 전하며 지역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광고협 상임부회장 한상인 목사는 부활절 선언문을 낭독하며,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고협 측은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절기"라며 "이번 연합예배가 광주 지역 교회들이 더욱 협력하고 부활의 소망을 지역 사회에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교회 피해 조사·보상 촉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교회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국민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종교 시설과 교회에 대한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백신 접종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조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종교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회는 장기간 대면 예배 제한과 집회 금지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워졌으며 교회 공동체 활동이 중단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교회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역이 중단되거나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정책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코로나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쟁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당시 시행된 봉쇄 정책과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중보건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종교시설 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종교 시설, 특히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적인 예배 제한과 집회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교회의 재정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방역에 협력해 왔다고 밝히며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BEYOND ENTERTAINMENT ELEVATING EXCITEMEN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50년 희년, 감사와 미래 함께 바라보는 대회 되길”

[인터뷰] KPCA 희년준비위원장 김종훈 목사

해외한인장로회(총회장 김경수 목사, 이하 KPCA)가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1976년 서노회, 시카고노회, 동노회 등 세 노회를 중심으로 시카고에서 출범한 교단은 반세기를 지나며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아우르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번 희년 총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종훈 목사는 교단의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목사는 이번 희년을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는 계기로 설명했다. 그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신학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KPCA 50주년 정기총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욕 퀸즈 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진행된다. 김종훈 목사는 현재 교단 부총회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다음은 김종훈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해외한인장로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희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교단이 희년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복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복된 본질을 가지고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주제도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정했습니다.

또 희년은 단순히 지난 50년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단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교단이 무엇을 지켜 왔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 준비위원장으로서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총회는 단순한 총회가 아니라 몇 가지 큰 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단 50년의 역사를 정리한 50주년사가 발간됩니다. 또 신학과 교회의 미래를 다루는 50주년 기념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희년 집회와 기념 예배도 진행됩니다.

이번 준비는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라 교단 차원의 역사 정리와 신학적 성찰을 함께 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단의 지난 50년을 정리하는 역사 편찬 작업과 함께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미래 과제를 다루는 논문을 준비했고 희년 집회 역시 교단의 역사를 돌아보는 영감과 예배, 기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50주년사는 역사신학을 전공한 박태경 목사가 맡았고



희년대회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종훈 목사 ©기독교일보

기념 논문집은 이상명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어떤 점을 강조하십니까.

해외한인장로회의 신학적 뿌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반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진 이 신학 전통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강조합니다.

특히 신앙은 단순한 교리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번 희년을 맞아 작성한 논문에서도 교단의 정체성과 신학교육의 미래를 함께 다뤘습니다.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곧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신학교육의 방향과도 연결됩니다. 신학교는 단순히 목회자를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단 신학을 정립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신학교는 교회와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구조가 형성될 때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적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교회 역사 속에는 다양한 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 삼중 축복 신학, 민중신학 등 서로 다른 신학적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균형을 잃기 쉽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편협한 시각에 머물지 않는 균형 잡힌 신학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특정 이론이나 사상을 절대화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

-해외한인장로회 교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은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교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시대의 선교는 과거처럼 선교사를 보내는 방식만이 아니라 각 지역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의 제4물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자신의 직업과 전문성을 통해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교회는 여러 문화와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세계 선교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해외한인교회는 단순한 이민교회라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교회가 1세와 2세를 언어와 문화 차이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교회론적 의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과 같다고 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언어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한 집안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듯 교회도 신앙의 흐름을 함께 이야기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1세와 2세가 함께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교회 프로그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 교육이 함께 이어질 때 다음 세대 신앙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을 맞는 교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그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세우신 뜻을 다시 붙들다면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김대원 기자

저스트 지저스, 3월 ‘다와요’ 예배 성료... “하나님만 신뢰”

‘저스트 지저스(대표 브라이언 박 목사, JUST JESUS)의 오프라인 예배 모임인 ‘다와요’ 예배가 얼마 전 3월 예배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메시지를 전한 가운데, 4월에도 예배를 이어간다.

저스트 지저스는 최근 서울 햇불선교센터에서 ‘다와요’ 현장 예배를 열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예배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을 맞아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의 결단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 참석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말씀 순서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염려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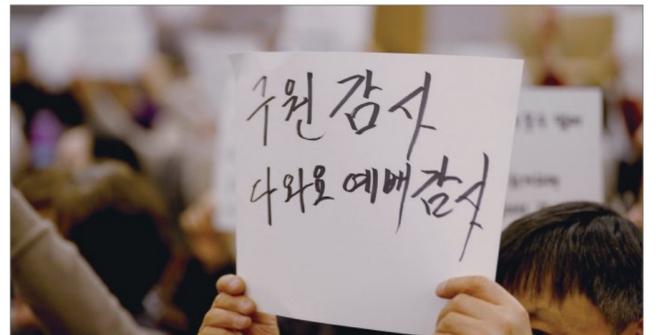
이날 설교를 전한 브라이언 박 목사는 해당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해 온 경험을 나누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강조했다. 말씀 이후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참석



저스트 지저스의 3월 다와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저스트 지저스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각자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주최 측은 “다와요 예배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앙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이어갈 것”이



저스트 지저스의 3월 다와요 예배에서 한 참석자가 ‘구원 감사 다와요 예배 감사’라고 적힌 스티커를 들고 있다. ©저스트 지저스

라고 밝혔다. 한편 4월 ‘다와요’ 예배는 오는 4월 6일 오후 7시 14분 서울 양재동 햇불선교센터 사랑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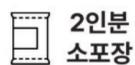
주최 측은 올해부터 ‘다와요’ 정기예배에서 모인 헌금 가운데 일부를 마지막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멸공떡볶이 출시

100% 국내산 고춧가루
0% 중국산 고춧가루

네이버에서 멸공떡볶이 검색



국대 스튜디오

연세조찬기도회, 새학기 맞아 열려... 장학증서도 전달



제209회 연세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조찬기도회

연세대학교 동문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제209회 연세조찬기도회가 새학기를 맞아 예배와 장학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연세조찬기도회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신촌캠퍼스 루스채플에서 약 200여 명의 연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기도회는 연세체육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새학기 첫 모임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김계원 동문의 전주와 문성빈 은퇴교수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찬송과 기도, 성경봉독, 설교, 합심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기도 순서를 맡은 전용관 교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

사한다"며 "연세가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진 인재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성경봉독은 우기정 연세체육회장이 맡았고, 특별찬양은 신촌성결교회 장로중창단이 맡아 찬양곡 '한 사람'을 선보였다. 설교는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담임, 월드비전 이사장)가 연세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전했다. 그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언급하며 "예수님의 계보에는 왕과 족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차별과 한계를 넘어 모두를 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의 초기 역사도 소개했다.

그는 세종의 의학교 제1회 졸업생 가운데 백정 출신 의사였던 박서양을 언급하며 "신분 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에 연세는 그를 받아들이고 교육해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었다"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의 정신이 연세의 역사 속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예배 중에는 장은 메조소프라노가 헌금특송 'The Holy City'를 불렀으며, 이후 지구촌 평화와 나라, 한국교회, 대학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또한 이날 기도회에서는 2026년도 1학기 장학증서 전달식도 진행됐다. 윤동섭 총장과 연세조찬기도회 회장 김운성 목

사(영락교회 담임)이 최희주(신학과), 박찬영(치의학과), 강건희(물리치료학과), 김신영(창의기술경영학과)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우기정 연세체육회장은 인사말에서 "연세대학교는 단순한 학문 교육을 넘어 믿음과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섬기는 인재를 길러온 미션스쿨"이라며 "운동부 신입생들이 경기력뿐 아니라 인격과 책임감을 갖춘 연세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도회 후 참석자들은 학생회관 식당에서 애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제210회 연세조찬기도회는 영락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파주 운정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 열린다... 최대 80% 할인 판매

경기 파주 운정 지역에서 이웃 돕기와 한반도 자유통일을 기원하는 대규모 나눔 바자회가 열린다.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와 충만한교회(담임 임다윗)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파주 운정에 위치한 충만한교회 운정성전에서 '사랑나눔 바자회(Mission Bazaar



for Peace and Sharing)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평화통일재단이 주관하며 지역사회 나눔과 평화통일을 위한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의류와 식품, 생활용품,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부스가 설치되며, 대부분의 상품이 시중 가격보다 60~8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의류 코너에서는 브랜드 의류와 패션 아이템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

고, 식품 코너에서는 김치와 빵, 도너츠, 과일, 건강식품 등 여러 먹거리가 준비된다. 생활용품 코너에서는 주방용품과 가전제품, 공예품, 액세서리 등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별도의 푸드존(Food Zone)도 운영된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함께 참여하기 좋은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바자회는 그동안 충만한교회가 진행해 온 '아나바다' 형태의 플라마켓 경험을 바탕으로 규모를 크게 확대한 행사다. 지역 교회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정 지역 최대 규모의

나눔 바자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매 행사가 아니라 자유통일을 기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장"이라며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교회 성도뿐 아니

라 운정과 일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방문해 쇼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 형식의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충만한교회 운정성전(031-943-0708)으로 하면 된다. 노형구 기자

수영로교회, 고 정필도 목사 4주기 추모예배 개최

부산 수영로교회를 개척해 한국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故) 정필도 목사의 신앙과 사역을 기리는 추모 예배가 열린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과 기도의 정신을 다시 새기겠다는 뜻을 모으고 있다.

이번 4주기 추모 예배는 이현우 행정목사의 사회로 시작되며, 현안 양성부의 연주가 더해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부산 성시화 운동에서 정 목사와 함께 사역했던 이정삼 목사(석포교회 원로)가 설교를 맡아 고인의 신앙과 목회 정신을 전한다. 이후 수영로교회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며 예배는 깊은 시간으로 이어진다.

예배 말미에는 가족 대표의 인사와 함께 이규현 담임목사의 추모사와 축도가 진행된다. 예배 후에는 참석자들이 고인의 생전 사역과 헌신을 돌아보며 교제하

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필도 목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거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1975년 부산에 수영로교회를 개척하며 복음 사역을 시작했고, 이후 지역 교회와 한국 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정 목사의 목회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했다. 그는 평생 "무릎으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복음만 전한다"는 신념을 강조하며 목회와 사역에 임했다. 이러한 신앙적 원칙 속에서 그는 부산 성시화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지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 힘썼다.

특히 '엑스플로85 부산 선교대회'와 '2007년 해운대 부산 대부흥대회' 등 굵직한 복음 집회를 이끌며 부산 교계의 부흥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국내외를 오가

며 400회가 넘는 부흥회를 인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영로교회 관계자는 "정필도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었던 기도의 사람이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번 추모 예배가 단순히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돌아가 기도의 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온 정 목사의 삶과 헌신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신앙과 사역이 새로운 부흥을 향한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노형구 기자

송실대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서울통일교육센터' 사업자 선정

2년간 국고 1억8천만 원 지원... 서울 지역 통일교육 거점 역할 수행

송실대학교 송실평화통일연구원이 통일부가 주관하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년간이며, 약 1억 8천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서울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가 지정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서울 지역 내 통일교

육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일반 시민,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실학술원 문용 원장은 "송실대 송실평화통일연구원이 통일부 주관 '서울통일교육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2014~2015년 사업 수행 이후 12년 만"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 지역 대학 및 전문가관과 협력해 평화통일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용 원장은 이어 "송실 설립 130주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 사업을 맡게 된 만큼 평양 송실과 서울 송실을 잇는 통일교육의 의미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내의 통일 연구와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산업진흥연구, MOU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가 산업진흥연구와 상담학 및 산업시스템 융합 연구와 학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얼마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연구 본부에서 산업진흥연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상담학과 산업시스템 연구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학문적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 연구 성과를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산업진흥연구 업무협약 기념 사진.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시스템과 상담학의 융합 연구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혁신

을 위한 이론 및 응용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학술지 발행과 연구 자료 공유를 통한 학문적 교류 확대, 온라인 상담 관리 서비스 보급 및 기술 자문 협력, 기타 공동 학술 및 연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을 비롯해 학술부회장, 사례부회장, 저술편집위원장 등 학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산업진흥연구 측에서도 임상호 산학편집위원장(순천향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장지동 기자

LX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옛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창호 부문 최다위(8위)
LX Z:in 창호

LX Z:in

KWWMF, 호주 선교사 후손 초청 감사패 전달... 한국 복음화 헌신 기념

한인세계선교사회, 시드니서 호주 장로교·연합교단 선교사 후손 만나 감사 전례

한국 복음화에 헌신한 호주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호주 시드니에서 마련됐다.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 임원단은 2026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호주연합교단 본부를 방문해, 과거 한국에 파송돼 복음을 전했던 호주 장로교단과 호주연합교단 선교사들의 후손들을 초청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복음화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KWWMF는 한국교회와 약 2만4천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표해, 한국 선교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호주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선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그 헌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기념 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KWWMF

송상천 KWWMF 대표는 행사에서 전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가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선교사들은 여러분의

선조가 조선 땅에 와 복음을 위해 흘린 땀과 피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 140여 년 전 복음을 알지 못하던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조선을 찾아와 복음을 전해 준 호주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또 "여러분의 선조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통해 오늘의 한국이 선교 한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며 "그 헌신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한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

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선교사 후손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와 함께 한국 전통 공예품인 나전칠기 보석함이 전달됐다. KWWMF 임원단은 이 선물물 통해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으며, 그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마음을 전했다.

KWWMF는 앞으로도 한국 복음화 역사에 헌신했던 해외 선교사들을 기념하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거제고현교회 박정곤 목사 "경찰은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사명자"

경남경찰청 정병관 대감당서 신임 경찰 대상 안보 특강... 역사 인식과 경찰의 사명 강조

경남경찰청 신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 특강이 진행되며 경찰의 사명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거제고현교회 담임이자 경남경찰청 경목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곤 목사는 2월 27일 경남경찰청 정병관 대감당에서 신임 경찰관 제319기를 대상으로 안

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경남경찰청 특별교육 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박 목사는 경찰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라는 직무의 의미를 단순한 직업의 차원을 넘어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사명의 관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신임 경찰관들은 강의 내내 집중된 모습으로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바라본 나라 사랑과 경찰의 사명

박 목사는 이날 강연의 주제를 "우리의 역사와 나라 사랑, 그리고 경찰의 사명과 섬김"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비롯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적 여정을 설명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박 목사는 나라 사랑을 단순한 구호나 감정적 표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경찰이 수행하는 역할 역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책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섬김의 자세

이어 경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설명하며 경찰이라는 직무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지닌 존재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관한

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한 책임감과 겸손한 자세가 함께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이러한 가치가 경찰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경찰로서의 길을 시작하는 신임 경찰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제 정세 속에서 강조된 경찰의 안보 역할

박 목사는 강연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찰의 역할이 단순한 치안 유지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경찰 역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신임 경찰관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말하며 경찰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강조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최승연 기자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한남대 반도체 교육 인기... 22개 강좌에 1500명 몰려

'융합교육 필수주의제' 기반 나노반도체공학교육 운영

한남대학교 반도체소부장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반도체소부장 COSS사업단)이 2026년 1학기 반도체 분야 교과목 22개를 개설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한남대에 따르면 이번 학기 개설된 반도체 분야 22개 교과목의 수강 인원은 1500명을 넘어섰으며, 전공과 관계없이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수강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설된 교과목은 기초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초급 수준의 수업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장비 기구, 부품·장비 제어, 패키징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론

중심 강의뿐 아니라 실습 교과목도 함께 마련해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한남대는 반도체 단일 학과를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융합교육 필수주의제'를 기반으로 한 나노반도체공학교육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전공은 반도체소부장 COSS사업단이 중심이 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기존 학과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분야 전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융합형 전공이다.

또한 한남대는 컨소시엄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점 교류를 통해 협력 기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소부장 COSS사업단 김윤중 단



한남대학교 반도체소부장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2026년 1학기 반도체 분야 교과목 22개를 개설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남대

장은 "AI와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정지동 기자

키워드설교학교 '키워드설교 봄 말씀 수련회' 개최

키워드설교학교와 굿나제하우스가 26일부터 27일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키워드설교 봄 말씀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구약 소예언서인 미가서와 나훔서를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살피고, 키워드 중심 성경해석을 통해 설교로 연결하는 실



제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련회에서는 심판과 회복, 공의와 긍휼이라는 예언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미가서와 나훔서를 구조적으로 살펴 본다. 참가자들은 본문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발견하고 성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 이재문 목사는 성경 본문을 쉽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사역자이자 교수로 알려져 있다. 그는 키워드설교학교에서 '구조로 읽는 성경과 복음 중심 설교'를 강조하며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설교로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왔다. 그는 '키워드'로 보는 구약·신약 개요, '키워드설교 4복음서', '키워드'로 쉽게 푸는 '요한계시록' 등을 집필했으며, 최근에는 『진짜 설교를 아는가』를 출간했다. 주최 측은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강의를 넘어 설교자의 내면과 사역 방향을 점

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언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심판의 본문 속에서도 복음의 흐름을 발견하며 성경 전체를 연결해 보는 시각을 열어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미가서와 나훔서를 통해 공의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며 설교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련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개인 20만 원, 부부 30만 원이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는 010-7312-1119로 하면 된다. 최승연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제3회 전미주장애인체전 달라스 대회, 동남부 장애인 선수단 참가 모집 및 후원 안내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텍사스 달라스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전미주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남정길)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달라스 루이스빌 소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는 아틀란타 장애인체육회 박승범 회장, 김순영 이사장, 그리고 동남부장애인체육회 천경태 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지적발달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 유형의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 지역사회 사역 단체와 손잡고 '희망의 외연' 확장

현재 아틀란타 지역은 프라미스교회, 소명교회, 제네레이션교회, 슈카로프교회, 연합장로교회, 제

일장로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장애인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을 돕고 있으며, 밀알, 사인, 원미니스트리, 숲, 에듀버드 등 주중 사역 단체들이 장애인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사회적 토대 위에서 아틀란타 장애인체육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모든 대외적인 스포츠 행사를 주관하며 장애인들의 신체 활동과 사회 참여를 이끌고 있다.

특히 동남부한인연합회(김기환 회장)와 협력하여 6/6에 열리는 '동남부제전에 장애인 경기를 포함 시키는 등 동남부 27개 지역 한인회에 속한 모든 장애인 가족들이 소외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

이번 달라스 대회는 동남부 6개주(GA, AL, TN, NC, SC, FL)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 가족을 주

공으로 초대하여 정식종목, 시범경기, 가족경기 등이 펼쳐진다.

• 참가 대상: 모든 유형의 장애인, 비장애인 파트너, 주변 외국인 친구 등

• 주요 종목: 통구, 축구, 육상, 수영, 보치아, 유니파이드 경기(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팀) 등 총 15개 종목

• 특이 사항: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치아 경기 기구를 도입, 원미니스트리 장애인 센터 등과 협력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한 환경 조성

■ 따뜻한 동행, 선수단 경비 지원 및 후원 요청

동남부 및 아틀란타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참가 선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애인스포츠 장학금 일환으로 대회 경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승범 아틀란타 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달라스 총회 임원 및 이사회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천경태 동남부장애인체육회장은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믿

고, 선수나 봉사자, 혹은 후원자로 이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앤더슨 김 기자

“성경 이야기의 구조 읽기: 내러티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애틀랜타목회자성경연구원 후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공개강좌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공개강좌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애틀랜타 목회자성경연구원(회장 오성복 목사, 이하 목성연) 후원으로 주님과동행하는교회(담임 유예 녹 목사)에서 열렸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공개강좌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박성진 박사(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아시아부 학장)가 구약학 교수(사진)가 강사로 나서 “본인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성경 이야기 구조 읽기’를 주제로 열린 강좌에는 약 20여명의 목성연 회원들이 참석해 진지하게 임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집이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약 43%, 신약 성경의 약 40%가 이야기 장르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은 단순한 명령이나 설명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독자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해석의 자리로 초대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 이신지 발견하도록 돕는다”고 서두를 땀 박성진 박사는 성경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스토리)’와 ‘담론(디스кур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구약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각각의 복음서가 다른 강조점으로 기록한 예로 들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성경적

로 해석하는 내러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눴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사건, 등장인물, 대화 방식, 시점, 시간과 배경, 갈등과 해결 등의 요소가 인과적으로 연결되며 의미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적 분석은 성경을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 축소하는 것을 막고 저자가 강조하려는 신학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독자는 이야기 속 인물들과 함께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설명을 이어간 그는 “성경 내러티브에는 독특한 문학적 구조들도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키아즘(Chiasm)과 인클루지오(Inclusio)이다. 키아즘은 대칭구조를 이루며 중심점에 핵심 메시지를 배치하는 방식이고, 인클루지오는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동일한 표현이나 주제로 묶어 중심 주제를 강조한다. 성경 저자들은 종종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내는 “Hidden Until Revealed” 기법도 사용한다. 이외에도 반복되는 타입-씬 (type-scene)과 상징적 모티프가 자주 등장하는 등 이런 장치들

은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깊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보여준다”고 성경해석의 다양한 방법과 적용을 제시해 참석자들에게 도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진 박사는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서사이다. 이야기의 구조와 문학적 장치를 이해할 때, 독자는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으며,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면서 함께 성경이야기 구조읽기를 정진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는 남침례교단(SBC) 산하 신학대학원으로, 북미 지역에서 한국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커리큘럼과 탁월한 미드웨스턴 교수진의 강의를, 전 세계 어디서든 100%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문의는 미드웨스턴 한국부(hkwn@mbts.edu). 김영복 객원기자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김은호 목사 초청 ‘말씀집회’ 개최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담임 김홍연 목사)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김은호 목사(한국 오통교회 설립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를 강사로 초청해 ‘말씀집회’를 개최한다.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의 해석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신앙의 회복과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는 “이번 집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심을 깨닫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사로 초청된 김은호牧사는 서울 오통교회 설

립 목사로,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기도운동인 ‘다니엘기도회’를 시작한 목회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8년 시작된 다니엘기도회는 매년 21일 동안 진행되는 연합 기도운동으로, 현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기도회로 자리 잡았다.

김 목사는 오통교회를 개척해 성장시키며 약 35년 동안 담임 목회를 감당했으며, 이후 담임목사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는 원로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와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에도 힘쓰고 있으며, ‘DNA Ministry’를 통해 신앙의 다음 세대와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GOODTV 공동대표이사과 ‘꿈이있는미래’ 대표로 섬기며 다양한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다.

집회 문의는 전화 (206) 480-8375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무료 시력 관리 기회, LA EYE CAMP 열린다

Vision Care Service West(이하 VCS West)가 오는 4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EYE CAMP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료 시력 검사, 무료 안과 검사, 무료 돋보기 안경, 무료 아동용 안경(만 7-18세), 무료 백내장 수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동용 안경과 백내장 수술은 VCS West 지침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 주최 측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제약으

로 시력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웃들을 위해 LA EYE CAMP를 개최한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이 소식을 접하고 눈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문의는 213-563-9307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특별기고 “진정한 기독교의 중국화는 사람들을 예수께 나아가게 해”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선교 방법론' 연재를 시작하며 가짜 중국화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위해 기독교를 길들이는 것

오늘날 기독교를 '중국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중국화를 누군가가 가장 훌륭하게 정의했다. “이는 종교를 중국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종교를 중국 공산당에 굴복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중국화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존 로스(John Ross) 같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미 기독교를 '중국화' 해오고 있었다. 물론 '중국화'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이제 곧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따라서 전 세계교회가 중국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의 중국화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중국과 세계 기독교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현지 실정에 맞게 '상황화'된(contextualized) 신앙이다. 예일 대학에서 선교와 세계 기독교를 강의하는 라민 사네(Lamin Sanneh) 교수가 지적한 대로, “기독교는 번역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물이 축축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심지어 기독교에는 '원래의 언어'도 없다. 기독교를 세우신 예수님이 직접 말한 언어(아람어)와 그 말을 기록한 언어(그리스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경, 기도, 찬송, 계명 같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표현은 언제나 그 지방 토착어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번역자들은 잘 알겠지만, 번역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다. 번역은 신학이다. 번역하겠다는 결정까지도 신학적이다. 우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북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북한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한다. 물론 한국어 성경이 더 인정받아 널리 보급되었지만, 우리는 북한어 성경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북한어로 말할 때, 북한 사람이 더 주의 깊게 듣고 뜨겁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존 로스도 최초로 신앙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했을 때, 똑같은 이유에서 학문적 언어 대신 대중적 언어를 택했다. 우리는 중국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그 부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한다. 이러한 결정은 말씀(Word)이 육신이 된다는 성경의 선언과 일치한다. 그

런데 그 말씀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육신이 아니라 가장 흔하고 평범한 육신, 즉 우리 자신의 육신이 된다. 그 말씀은 세리처럼, 창녀처럼, 죄인처럼 말씀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언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롭게도 그 언어로 말씀하신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중국화 프로그램이 중국의 기독교를 변혁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일한 기독교가 바로 중국화 된 기독교였다. 중국 기독교에는 서양 기독교를 본뜬 '형식이 없었고, 선교사들이 일단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한 형식에 근거하여 사소한 부분들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서구 기독교가 기독교를 두드러지게 나타냈을 때, 중국에는 '서구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서구의 다양한 교파들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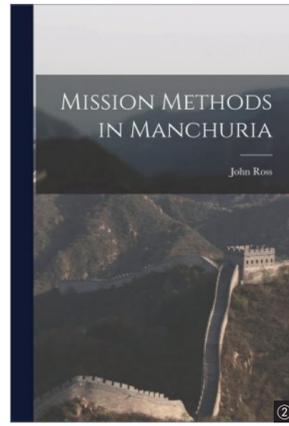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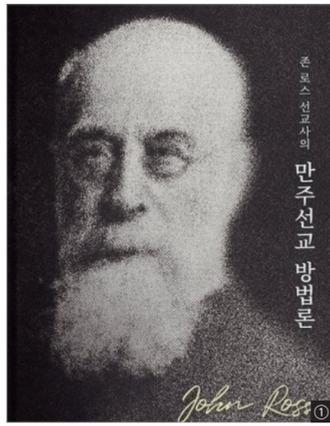
로마 가톨릭의 신앙 표현 방식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예수회 교단과 프란체스코 교단은 매우 다른 신앙 개념을 전파하는 데 몰두했다. 이 두 수도회 내부에서조차,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면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조상에 게 제사하는 관습을 중국 기독교인에게 허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례이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네스토리우스주의(Nestorianism)와 가톨릭이 나타난 차이점, 가톨릭과 개신교가 드러낸 차이점, 개신교와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가 보여준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짚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이들은 각기 매우 다른 점들을 강조하며 중국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은 중국의 서구화보다 기독교의 중국화에 훨씬 이바지한 것 같다. 라민 사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토착어로 성경을 번역한 결과, 선교사는 전문가 지위를 종종 상실했다. 그러나 토착어 성경 번역의 중요성은 그러한 결과를 무색하게 했다. 기독교로 회심한 중국인 신자들은 토착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추자 문화, 정치, 종교적으로 외국어 지배하는 모든 제도가 정당한 것인지 한결 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중대한 역할이 있었다.

토착어로 번역된 성경,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된 더 광범위한 문화, 언어적 사업은 토착민의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



①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선교 방법론' ②순교자의 소리 ③'만주선교 방법론' 영문판 사진 ©Legare Street Press ④글쓴이 에릭 폴리 목사(오른쪽)와 감수자 리진만 선교사(왼쪽)

키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 전체를 창출한 사람은 바로 선교사, 즉 외국 세력이었다.

선교와 식민지 건설이 종종 연결된다는 주장을 이러한 역설이 무너트린다고 나는 확신한다. 중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세력은 토착어 성경 번역과 선교사들의 다른 활동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존 로스의 책, 『만주선교 방법론』(Mission Methods in Manchuria)은 이러한 진리를 충분히 증명한다. 이 책에서 존 로스는 실제 사역에 적용했던 선교 철학과 방법론을 상세히 이야기한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서구 세력에 가장 수치스럽게 굴욕당했을 때조차도 기독교 선교사는 중국인을 모욕하지 않았으며, 우월하다고 알려진 서양의 지혜에 중국인들을 억지로 굴복시키는 데 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중국인의 양심이 우리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들을

엮매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규칙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규칙을 강요할 때, 우리를 속이라고 믿음을 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는 경우, 단지 외국인 선교사가 옮겨 여긴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준수사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중국인은 그런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들의 무를 인식할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외국 선교사의 뜻이나 무척대고 그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강요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진심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와 참 신앙입니다. 이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종교를 속

박과 집으로 만듭니다.

완전히 독단적인 규칙에 복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원칙은 양심에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되려면 '믿음은 반드시 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당사자 자신이 '마음으로 확신할 때만' 믿음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존 로스가 중국 문화를 서구화하는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존 로스는 중국 문화에 조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평범한 중국인 남자와 여자에게 집중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열망했다. 이런 점에서, 아마 그는 이례적이거나 그 시대의 전형적인 선교사였을 것이다. 사내가 지적한 대로,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건설이라는 가치보다는 토착민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치를 자신들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대신 평범한 중국인 남자와 여자에게 집중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열망했다. 이런 점에서, 아마 그는 이례적이거나 그 시대의 전형적인 선교사였을 것이다. 사내가 지적한 대로,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건설이라는 가치보다는 토착민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치를 자신들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존 로스가 민족적 차이점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것은 아니었다. 존 로스는 중국 교회가 문화적으로 서구 교회에 동화되게끔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사실, 사내가 주목한 대로, “기독교 선교는 언어, 사회적 접촉, 소수민족 집단의 기독교 운동 참여 같은 분야에서 다원주의(pluralism)를 확대하고 심화했다. 세계 공동어가 날로 세력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선교는 세계 공동어에 위협받는 언어들을 보존하는 데 한몫을 했다.”

알려진 대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 기독교에서 서양 문화의 틀을 지워버릴 목적으로 기독교를 '중국화'하는 일을 시작했으면서, 동시에 자국 내 소수민족 집단들에게는 국수주의자처럼 중국 문화만 강요한다는 사실은 모순적이다. 이는 상당 수준의 민족적 당파심으로, 존 로스 시대의 서양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뜻에 깊이 영향받아 더 철저히 변화되었지만 말입니다”라고 기록했다.

이는 서양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의 본질에서 비롯된 의견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한 것과 같다. 따라서 선교사를 평가하는 잣대는 중국을 더 '서구화'하느냐 '중국화'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구원하느냐는 것이다.

존 로스가 추진한 기독교의 진정한 중국화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한 그것의 모조품의 차이가 바로 그 점에 있다. 진정한 중국화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촉진하거나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는 길로 데려오고, 그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만 힘쓴다.

가짜 중국화는 기독교를 길들이기 위해 애쓴다. 가짜 중국화는 기독교를 공산당의 목적지와 '동일한 목적지로 통하는 또 하나의 길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 그 목적지란 시진핑과 공산당이 그리는 중국의 꿈이다. 그러나 공산당 정부에 길들여진 기독교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 권력자들의 목표와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로 섞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사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시민으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인이 정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예수님 가르침의 참뜻에 깊이 영향받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덜 집중하고 이웃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우리를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 사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다. 존 로스의 『만주선교 방법론』은 그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준다. 이웃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이 기록된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도전적이고,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선교 방법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2-2065-0703) 및 www.vomkorea.com 을 방문 연락 바랍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 (감수: 리진만 선교사)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대 양수발전 사업사 선정**
(구례, 봉화)
-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5사 중 1위**
(11개소)
-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페루 리마 대형 복음집회... 9만 명 이상 복음 메시지 들어

페루 리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형 복음 집회 '에스페란사 리마(Esperanza Lima)' 축제를 통해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최근 페루 수도 리마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렸으며, 복음 전도자 프랭클린 그레함(Franklin Graham) 목사가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새로운 삶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가 열린 이틀 동안 경기장은 관중으로 가득 찼으며, 입장하지 못한 수천 명의 시민들은 경기장 주변 거리에서 설교를 들었다.

이번 집회에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

께 모였으며, 설교에 앞서 진행된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그레함 목사가 설교를 마친 뒤에는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영적 결단을 위해 무대 앞으로 나왔다. 행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들은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 통로를 가득 메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레함 목사는 설교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소개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집을 떠났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신다고 강조했다.

설교 마지막 순간에는 수천 명의 참석



수천명이 페루 리마 국립 경기장에 모여 '에스페란사 리마' 축제 기간 동안 복음 전도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메시지를 들었다. ©BGEA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초청에 응했다. 많은 이들이 경기장 앞쪽으로 나와 기도하며 회개를

표현했으며, 이러한 장면은 희망과 삶의 변화를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큰 영적 영향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행사에 앞서 그레함 목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 사회에 깊은 영적 필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함 목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행복을 찾고, 사랑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복음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마 집회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과 2,300개 이상의 교회가 참여해 전도 사역을 지원하고, 신앙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이들을 돕기 위한 후속 사역에도 협력했다. 이번 행사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같은 경기장에서 설교했던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다시 열린 대형 집회다.

행사는 국제적인 기독교 음악가들도 참여했다. 채리티 게이일(Charity Gayle), 더 애프터스(The Afters), 크리스틴 델 클라리오(Christine D'Clario), 자하지엘 밴드(Jahaziel Band) 등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또한 행사 주최 측은 도시 곳곳에서 참석자들이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일 밤 600대의 무료 버스를 운영했다.

'에스페란사 리마' 축제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최근 열린 가장 큰 규모의 복음 집회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으며,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회복, 새로운 삶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명경 기자

이란 반정부 시위 속 기독교 개종자 2명 사망 확인

이란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기독교 개종자 2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올해 초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독교 개종자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의 시위는 지난해 12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로 정권에 비교적 우호적인 상인 계층인 바자리(Bazari) 상인들이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했다. 이후 정부 자체에 대한 항의 시위로 확대됐으며, 이란 당국은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지만 최소 7,000명에서 3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위는 해외 세력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 확산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페위인 샤(Shah)의 아들인 레자 팔라비,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등이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모사드는 페르시아어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 단지 멀리서 말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다.

오픈도어(Open Doors)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 10위에 올라 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큰 위협에 처해 있으며, 이번에 사망이 확인된 두 명도 이러한 개종자였다.

종교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아티



©Sina Drakhshani/ Unsplash.com

클 18(Article 18)'은 나테르 모하마디(35)와 자흐라 아르조만디(61)가 지난 1월 8일 각각 다른 시위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위 과정에서 최소 17명의 다른 기독교인들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이며, 일부는 아르메니아 및 아시아 등 이란의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티클 18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레자 팔라비의 개입 이후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마디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나는 왕세자(레자 팔라비)의 명령에 따라 거리로 나왔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란 기독교 매체 모하바트 뉴스(Mohabat News)에 따르면 아르조만디의 시신은 이란 보안 당국에 의해 6일 동안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시신이 반환된 이후에도 유가족은 추모 예배를 열거나 그녀의 사망 경위에 대해 알리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경 기자

교계 지도자들 "세계, 위험한 전환점 접근... 평화 구축 촉구"

세계 주요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이 전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에 평화 구축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국제 정세가 "위험한 전환점(dangerous tipping point)"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WCRC(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Anglican Communion), 세계 감리교협의회(World Methodist Council), 루터교 세계연맹(Lutheran World Federation) 등 4개 세계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분쟁이 초래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이란과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미 진행 중인 분쟁인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 미얀마 등의 갈등에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전 세계 수백만 기독교인을 대표해 전쟁으로 인한 광범위한 고통을 목격하며 깊은 슬픔을 느끼는 동시에 평화를 향한 결의를 함께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국제사회가 외교와 협력을 통해 폭력을 예방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도자들은 대화와 협상보다 군사적 대응에 점점 더 의존하는 국제적 흐름을 비판하며, 막대한 자원이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이 아닌 무기와 군사력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 지도자들은 "오래된 전쟁들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전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는 폭력이 일상화되고 사람들과 공동체의 죽음과 고통이 용인되는 위험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법 위반과 민간인 대상 폭력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그들의 권리와 생계,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교황 레오(Pope Leo)의 발언을 언급하며, 세계가 평화를 공동의 도덕 목표로 추구하기보다는 점차 힘과 군사적 우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제법과 국가 간 협력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세계가 무기를 축적하고 파괴적인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가 갈망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며, 강압과 지배로 유지되는 평화도 아니다"라며 "평화는 돈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포함하고 공동체 문화를 변화시키는 평화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정의와 존엄, 번영이 보장되는 상태"라고 했다.

성명은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국가 간 대화와 중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pixabay

역할을 재확인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논의가 냉소가 아닌 건설적 접근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도자들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앞둔 신앙적 시기를 언급하며 "기독교 신앙은 고통과 두려움, 선한 것의 파괴를 마주하는 시기 속에서도 용기와 진실함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며 "같이 쉽지는 않지만 새로움과 회복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와 파트너 단체들이 전쟁 피해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각국 정부와 지역기구, 국제기구가 외교, 인도적 지원, 지역 기반 평화 구축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자들은 특히 갈등 예방과 사회 재

건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 종교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교회는 변화시키는 평화를 위한 끈질긴 옹호자가 되겠다"며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요구하며, 봉사 사역을 통해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계속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구성원들에게 평화 윤리를 교육하고 사회에 퍼져 있는 증오와 적대의 서사를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Anthony Poggio(성공회 공동체 사무총장), Anne Burghardt(루터교세계연맹 사무총장), Philip Vinod Peacock(개혁교회세계공동체 사무총장), Reynaldo Ferreira Leão Neto(세계감리교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서명했다. 이명경 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에서 만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주민 반발로 HKBP 교회 공사 중단

종교 자유 논쟁 속 허가 문제 둘러싼 긴장 고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서 이뤄지던 교회 지붕 수리 공사가 무슬림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종교 자유와 예배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리아우(Riau)주 인드라기리 홀루(Indragiri Hulu) 지역 루북 바투 자야(Lubuk Batu Jaya) 하위 행정구역의 쿨림 자야(Kulim Jaya) 마을에서 바타크 개신교 교회(HKBP, Huria Kristen Batak Protestant)의 지붕 보수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일부 무슬림 주민들이 경찰과 지역 행정 관계자와 함께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현장에 들어갔다.

◆**무슬림 주민들, 교회 지붕 수리 중단 요구**
CDI는 현지 주민 수십 명이 지난일 교회 건물에서 진행 중이던 지붕 수리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회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무슬림 주민들의 사전 동의와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 70명의 주민 가운데 최소 20 명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사 중단을 요구

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경찰과 하위 행정구역 책임자도 함께 있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현장에서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 "우리는 예배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리 공사에 필요한 허가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 기독교 여성은 "교회 지붕이 새고 있어 수리를 하는 것"이라며 "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지역 당국 "주민과 교회 간 중재 진행 중"**
루북 바투 라야 하위 행정구역 책임자인 아르민(Armin)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교회 습격이나 강제 침입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주민들과 교회 사이에서 중재가 진행됐으며, 교회 측이 올해 2월 수리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관련 허가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르민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허가 허가 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 지도부는 해당 건물이 주민 거주지에서 떨어진 팜유 농장 지역에 위치해 있어 별도의 수리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교회와 하위 행정구역 종교 간 협력 포럼,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중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 "건물 노후화 심각...예배 안전 위협"**
HKBP 교회 담임목사 파베르 마누롱(Faber Manurung)은 성명을 통해 교회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1995년 건립된 목초 교회 건물이 심각하

게 손상돼 있었다"며 "나무 판자들이 썩어 무너지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어 예배를 드리기에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마누롱 목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올해 2월 교회 건물 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해당 교회가 인도네시아 종교부에 정식 등록된 예배 시설이며 관련 법적 서류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2010년부터 건물 보수를 시도해 왔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공사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종교 자유 문제 다시 주목**
인도네시아 기독교 청년운동 중앙지도위원회(GAMKI)는 교회 수리를 막은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GAMKI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사햇 시누랏(Sahat Sinurat)은 "신앙에 따라 예배할 권리를 행사하는 교회 신자들에게 강압과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옹호 단체인 인도네시아 포 올 운동(PIS)도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 자유 침해 문제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PIS 관계자 리즈카 푸트리 아브네르(Rizka Putri Abner)는 "교회 건물 건설이나 수리 과정에

서 항상 허가 문제와 지역 주민 동의가 이유로 제기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헌법이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연구하는 세타라 연구소(Setara Institute)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종교 자유 침해 사례는 260건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에는 402건이 보고됐다.

또 다른 인권단체 콘트라스(Kontras)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 260건의 사건과 42건의 종교 자유 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치 분석가이자 동기부여 강연가인 프리츠 메코(Fritz Meko)는 이번 사건을 지역 사회 전체의 교회 거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이슬람 단체들이 보수적 이념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온건 세력이나 국가 정책과 대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기독교 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는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가 점점 더 보수적인 이슬람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일부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승연 기자

파키스탄, 기독교인 이혼 절차 완화 판결

라호르 고등법원, '유기(별거)' 사유 인정하며 소수 종교 권리 강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법원이 기독교 부부가 최소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이를 이혼 또는 법적 별거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을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 기독교 공동체가 오랫동안 겪어 온 이혼 절차의 법적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일 라호르 고등법원 자와드 하산(Jawad Hassan) 판사가 내렸다. 법원은 앞서 하급 법원이 기독교 남성의 이혼 소송을 기각한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유기(별거)'를 포함한 기독교 이혼법 규정을 적용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은 샤로즈(Shahroz)로 알려진 기독교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그는 아내 타레자(Tareeza)가 간통과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적 별거를 신청했지만, 하급 법원과 항소 법원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2년 이상 별거는 이혼 사유 될 수 있다"**
CDI는 고등법원 심리 과정에서 부부가 최소 2년 이상 별거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

혔다. 아내 역시 법정에서 별거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와드 하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 기독교 이혼법(Christian Divorce Act 1869)이 유기를 명확한 혼인 파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를 버리고 2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별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은 유기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기에는 실제 별거 상태의 존재, 혼인 관계를 끝내려는 의도,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는 이탈, 정당한 사유의 부재, 그리고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하급 법원이 관련 법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종교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권리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헌법 제20조는 시민이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신앙하고 실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개인법에 따라 혼인 문제를 해결할 권리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가정법원이 새로운 정점을 설정하고 '별거'에 따른 '유기' 여부를 포함해 사

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기독교 이혼법 해석 개선 위한 사법 지침도 제시**

이번 판결에는 기독교 가족법 사건을 처리하는 하급 법원의 절차 개선을 위한 행정 지침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판자브 주 지방 사법 행정 책임자에게 판결문을 주 전역의 판사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기독교 이혼법이 향후 재판에서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판자브 사법 아카데미에 판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이혼법과 종교 자유 관련 헌법 조항을 교육하는 워크숍과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식민지 시대 법률이 만든 이혼 장벽**
CDI는 이번 판결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추진할 때 겪어 온 오랜 법적 어려움도 다시 조명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기독교 이혼은 여전히 1869년 영국 식민지 시기에 제정된 기독교 이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남성이 이혼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만 인정해 왔다.

또한 간통이 이혼 사유로 제기될 경우 상대 배우자와 함께 간통 상대까지 공동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돼 실제 소송 진행이 매우 어



려웠다. 이 때문에 많은 기독교 부부가 이미 파탄난 결혼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도 간통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상당수 사건이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되기도 했다.

파키스탄 법원은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라호르 고등법원은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정권 시절 제정된 조례로 제한됐던 기독교 이혼법 제7조를 복원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기독교 이혼 사건에서 보다 폭넓은 혼인 파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독교 법률가 "종교 자유와 소수자 권리 강화 판결"**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권 변호사 라자르 알라라카(Lazar Allah Rakha)는 이번 판결을 환영

하며 "진보적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독교 시민이 이혼이나 법적 별거를 요청할 권리 역시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일부"라며 "하급 법원이 기독교 이혼법 제10조와 제22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잔혹 행위나 별거와 같은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라카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결정이 고등판심이 아닌 합리적 판단에 기반한 판결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판사들에게 공유하고 사법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침 역시 향후 기독교 혼인 사건에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파키스탄의 기독교 결혼 및 이혼 법 체계가 여전히 현대 가족법 기준에 맞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 활동가 메리 제임스 길(Mary James Gill)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종교 자유와 성평등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기독교 가정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공정성과 존엄을 반영하는 개인법 제도를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2023년 국가 인구 조사 기준 약 2억4150만 명 인구 가운데 약 1.37%를 차지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I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이란 전쟁의 여파가 아르메니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폴 머레이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이란 전쟁이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Iran war could impact Christian Armenia)'를 10일(현지시간) 게재했다.

폴 머레이 박사는 30년 이상 기독교 리더십에 헌신해 왔으며, 메릴랜드주 밀러스빌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국제 복음 전도자로 활동했으며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가이며, 동시에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인 내륙국이다. 또한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남북 교통로 가운데 하나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충돌 결과는 이 지역에서 세 가지 모델 중 어떤 것이 현실이 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경쟁적 교통로 경쟁 모델, 다른 하나는 분쟁과 사실상의 분리된 권력 구조가 뒤섞인 지역, 그리고 마지막은 법과 국가 통제를 기반으로 한 연결 네트워크다.

◆37지 이란, 3가지 남캅카스의 미래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대응 이후 전략적 논쟁의 중심에는 이란의 세 가지 가능한 미래가 있다. 각 시나리오는 남캅카스와 특히 아르메니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국가 분열과 중앙 권력 약화다. 아르메니아와 지역 언론들은 이란 북서부 지역의 불안정이 아르메니아 남쪽 국경을 따라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세력들을 등장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 불안정은 남캅카스로 대규모 난민 이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지역 전체는 더 느슨하고 불안정한 국경 환경 속에서 지역 민병대, 외국 정보기관, 경쟁하는 수도들이 영향력을 다투는 공간이 될 것이다. 아르메니아에게는 특히 슈니크(Syunik) 지역의 안보 위험 증가와 함께 제한된 국가 역량 속에서 새로운 인도주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강력한 중앙 통제와 안보 중심 국가로 변화한 이란이다.

일부 연구는 지속적인 외부 압력이 이란을 더 고립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제재는 강화되고 외교 및 경제 정책은 강경 노선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란은 여전히 중요한 지역 행위자로 남겠지만 합법적 경제 경로 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 결과 무역, 에너지, 영향력이 비공식적 또는 회색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흐를 유혹이 커질 것이다. 남캅카스 지역에서는 제재 집행이 강화되고 남북 교통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며 이란 접근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아르메니아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정치 개방과 경제 개혁이다. 국제 남북 운송 회랑(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과 같은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이란을 인도양에서 흑해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규칙 기반 무역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간주해 왔다.

이 경우 이란은 합법적인 물류, 에너지, 금융 네트워크에 더 깊이 편입될 것이다. 남캅카스 지역에서는 교통 체계가 보다 예측 가능해지고, 경쟁 중심의 도로 정치에서 협력 기반의 교통 관리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아르메니아에게는 제재와 강대국의 정치적 경계선을 계속 우회해야 하는 부담 없이 지리적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워싱턴, 브뤼셀, 모스크바, 앙카라, 그리고 지역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략 지형을 다시 그리게 될 것이다.

◆교통로 정치와 시험대가 된 슈니크
이란 이해관계가 가장 분명한 곳이 바로 남캅카스 교통로 경쟁이다. 국제 남북 운송 회랑과 페르시아만-흑해 연결 프로젝트와 같은 구상은 모두 아르메니아의 슈니크 지역을 중심으로 교차한다.

2025년 8월 백악관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합의된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Trump Ro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Prosperity)"는 감압이 아닌 합법적 교통 체계를 통해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협정은 이미 이 좁은 지역에서 교통, 주권, 영향력을 바라보는 외부 강대국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지역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교통로가 기존 국경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강대국이 통제하는 새로운 외부 통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한다.

만약 이란이 분열되거나 내부로 고립된다면 다른 지역 국가들은 이란과 아르메니아를 우회하는 대체 동서 교통로를 추진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이는 아제르바이잔과 나흐차반을 연결하는 통로를 아르메니아의 통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추진하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가 완전한 주권 국가가 아닌 단순한 통과 지역으로 취급되는 인프라 구상이 등장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란이 안정되고 지역 무역에 계속 참여한다면, 이란은 자신의 영토를 완전히 우회하는 교통 계획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기존 국경을 유지하고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교통로를 지지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

메니아는 걸프, 흑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합법적이고 국가 통제하의 육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외부 강대국들이 이러한 논쟁 속에서 아르메니아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분쟁 지역에서 소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신호가 될 것이다. 핵심 질문은 지역 통합이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주권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용인될 것인지다.

◆난민 문제와 인도주의적 압박

이란 위기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긴장이 고조될 때 아르메니아는 대피와 이동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란 내부에서 심각한 붕괴가 발생한다면 난민들이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300만 명도 되지 않는 아르메니아는 이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이주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은 공공 서비스와 사회 통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난민 이동이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전략적 현실이 되어 주변 강대국들이 활용하려는 요소가 된다. 만약 서방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인 남캅카스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아르메니아와 협력해 대비해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이 주목해야 할 아르메니아의 시각

이란의 미래는 단순히 중동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아르메니아와 같은 작고 민주적인 국가들이 안정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아르메니아의 경험은 이란과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데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주권과 연결성은 함께 움직인다. 국경이 압박받고 작은 국가들의 머리 위에서 교통로가 결정될 때 불안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다.

둘째, 합법적 무역 네트워크는 군사 균형만큼 중요하다. 이란이 개방과 개혁의 길을 택한다면 남북 회랑과 페르시아만-흑해 연결 프로젝트는 합법적 연결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인도주의 문제 역시 전략 문제다. 난민 이동, 대피 통로, 그리고 작은 국가들의 수용 능력은 위기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정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이란의 미래는 단지 페르시아만의 세력 균형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아르메니아와 같은 작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적인 국가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주권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이 지역이 분열과 강압적인 교통로 정치, 그리고 장기 분쟁으로 빠진다면 아르메니아는 다시 한 번 강대국 사이에서 압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정과 합법적 무역이 자리 잡는다면 남캅카스는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아르메니아의 미래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 질서가 여전히 작은 국가들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지리와 힘의 정치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최승연 기자

이란, 호르무즈 해협 넘어 페르시아만 전역 해상 공격 확대

이란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은 공격 대상" 경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해상 공격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유조선 화재와 드론 공격이 잇따르며 주요 항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에너지 운송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항만 당국은 이날 이라크 남부 바스라 항구 인근에서 발생한 미확인 공격으로 유조선 4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무원 25명이 구

조됐지만 외국인 승조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스라 항구 유조선 공격…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

바스라 항구는 쿠웨이트와 인접한 페르시아만 내부에 위치한 이라크 핵심 원유 수출 항만으로, 최근 공격이 집중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800km 떨어져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란의 해상 공격 범위가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이라크 당국은 공격 주체를 공식적으

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초기 조사에서는 폭발물을 실은 보트가 유조선에 접근해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NN은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해당 보트가 이란 측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의 여파로 바스라 원유 항만의 운영은 전면 중단됐으며 현장에서는 구조팀이 추가 생존자 수색과 피해 상황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바스라 항구는 이라크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서, 항만 운영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외국 선박 공격… 이란 경고

이란의 해상 공격 확대 움직임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확인됐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했다는 이유로 외국 선박 네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에는 이스라엘, 일본, 태국 선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이들 선박이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며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바야는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동맹국 소속이

거나 이들 국가의 석유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만 항구 이라크 유전까지 드론 공격 확산

같은 날 오만 남부 살랄라 항구에서도 대형 연료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이 사실이 이라크 무인기 '샤헤드' 드론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만 당국은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료 저장 시설의 규모가 큰 만큼 완전한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최대 유전 가운

데 하나인 마눈 유전 역시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공격에서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르시아만 에너지 수송로 위험… 중동 해상 긴장 확대

이처럼 이란의 공격 범위가 페르시아만 주요 항만과 에너지 시설로 확대되면서 중동 지역의 해상 안전과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제 해운과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인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공격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홍은혜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유럽이 기독교를 잃은 이유: 세속화가 아닌 교회의 내부 붕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리처드 하웰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유럽의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넘겨준 결과였다'(Europe didn't lose Christianity overnight. The Church gave it away)를 10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유럽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 기독교는 단지 외부로부터 밀려난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내부로부터 속이 비어 갔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의 위기는 단순히 무신론자들이 논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교회가 신뢰를 잃고, 진지함을 잃고, 결국 사람들에게 들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이야기다.

대성당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교회의 절기들은 여전히 달력 속에 남아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필요할 때면 여전히 "기독교 가치"를 언급한다. 인구 조사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폐허로 남은 기독교, 분위기로 남은 기독교, 향수로 남은 기독교에 가깝다. 제자도 없는 유산, 순종 없는 기억, 회개 없는 정체성이다.

그런 기독교는 유럽을 구할 수 없다. 수세기 동안 유럽은 단지 기독교가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유럽 자체가 기독교에 의해 형성되었다. 교회는 유럽에게 죄와 자비, 법과 인간의 존엄성, 교통과 죽음, 그리고 소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쳤다.

유럽의 예술과 음악, 도덕적 언어, 대학, 공적 상상력은 기독교적 전통들로 깊이 물들어 있었다.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틀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다. 기독교가 문명 자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문화, 복음과 권력, 세례와 소속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교회는 영향력을 얻었지만 종종 그 대가로 명확성을 잃었다.

따라서 쇠퇴는 바로 그때 시작된다. 교회가 공적관을 때가 아니라 편안해질 때

다. 교회는 영적으로 약해진 뒤에도 외형적으로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다. 교회는 건물을 가득 채우면서도 신앙은 비워 버릴 수 있다. 성례는 유지하면서 회심은 잃을 수 있다. 교리를 수호하면서 거룩함을 놓칠 수 있다. 유럽에는 그런 기독교가 많았다. 관습으로서의 기독교, 국가 전통으로서의 기독교, 민족의 기억으로서의 기독교였다. 그러나 종종 부족했던 것은 값비싼 제자도였다.

그래서 디트리히 부흐타가 말한 "값싼 은혜(cheap grace)"라는 표현은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준다. 유럽은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소속,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제공하는 법을 배워 버렸다. 그 결과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는 끝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심자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는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결국 여러 사건들이 그 실상을 드러냈다. 그것은 기관들의 부패, 종교 전쟁, 제국과의 타협 그리고 민족주의적 우상숭배다.

유럽이 기독교를 떠난 것은 단순히 세속화 때문만이 아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럽의 영적 붕괴를 세속 엘리트, 이민 문제, 성 윤리, 소비주의, 도덕적 상대주의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물론 그 비판 가운데 일부는 타당하다. 그러나 교회 자신의 책임을 건넬 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신앙을 문화적 지배와 혼동하는 교회는 결국 문화가 자신을 밀어낼 때 놀랄 이유가 없다.

자유주의적 기독교인들 역시 자신들만의 회피가 있다. 그들은 해결책이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교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요구 수준을 낮추며 확신에 대해 사과하고 가능한 한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부드러운 무력함이 아니다. 탈기독교적 사회의 감정을 달래는 종교적 위로자가 되는 교회도 아니다. 만약 유럽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너무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경우 충분히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도전적인 주장이다. 유럽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문명(Christendom)의 복원이 아니다. 사실 많은 면에서 그리스도교 문명 자체가 문

제의 일부였다. 교회는 정치적 연극이나 문명적 공표를 통해 문화적 헤게모니를 되찾으려는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기독교 유럽"이라는 표현은 종종 기도와 회개,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민자, 무슬림, 외부인에 맞서는 부족적 구호로 사용된다. 국경 표지판으로 사용되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회복이 아니라 배신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은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속주의에 대한 답은 신학적 당혹감이 아니다. 그것은 교만 없는 확신, 과시 없는 거룩함, 강요 없는 공적 증언이다. 유럽은 이미 약한 설교, 모호한 영성, 도덕적 상투어를 충분히 들어 왔다. 정치와 심리치료, 광고가 이미 그것을 넘치게 제공하고 있다.

유럽에 부족한 것은 단 하나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교회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배하는 교회 ▲죄와 권력, 탐욕과 욕망, 죽음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교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교회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도,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교회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유럽에서 기독교의 미래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적 지배력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과거의 제도적 특권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종종 권력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진실해진다.

유럽은 분명 탈기독교 문명(post-Christianity)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 이후의 시대(post-Gospel)가 된 것은 아니다.

오래된 기독교의 껍데기는 갈라지고 있다. 사실 그 가운데 일부는 깨져야 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할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남은 것들은 더 단순하고, 용감하고, 정직하며, 깨끗한 신앙일 것이다. 향수는 줄어들고, 부족주의도 줄어들 것이다. 대신 더 기독교하고 더 성경적인 교회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는 이렇게 변해 왔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문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었다. 마침내 기억이 되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그것이 다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최승연 기자

사순절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세우는 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사무엘 로드 리게스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사순절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다'(Lent is not a ritual — it's a reset for our Christian walk)를 10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을 의미 없는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바쁜 일상 속에 또 하나의 종교적 일정이 추가된 것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순절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필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심이 있지만, 기독교를 수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득한 견디기 힘든 규칙의 목록으로 보는 사람들과 수없이 대화를 나눠 왔다. 사실 이런 인식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을 지나치게 많은 규칙과 명령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여러 번 비판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워 놓았던 "무거운 짐"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지 제한하는 규정,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형식적인 손 씻기 의식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지루하게 견뎌야 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신앙의 실천이다.

사순절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다. 역사적으로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의 시간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40일 동안의 영적 여정이 된

다. 이 기간은 개인적인 성찰과 회개, 금식과 기도를 위한 거룩한 시간이다. 사순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외형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과정이다. 사순절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 계절이 올 때마다 필자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권면을 떠올린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베드로전서 3:15).

사순절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행동하고 신앙을 증언하도록 격려한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온라인 연결 속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나 사순절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거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초대한다. 우리의 문화는 소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사순절은 거룩한 절제를 요구한다. 또한 명성과 인정에 집착하는 사회 속에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겸손을 속삭인다.

또한 이 시기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을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계절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자주 홀로 물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바쁜 사역의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일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일정이 비워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셨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는가? 현실을 보면 삶이 바빠질수록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힘과 책임,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금식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감

동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이다. 금식은 우리의 욕체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약에 대한 갈망이 다른 모든 욕구보다 더 커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금식은 우리 삶에 여백을 만든다. 기도는 그 여백을 채운다. 그리고 나눔과 관대함은 그 여백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킨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다.

이 계절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던 모습을 떠올려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하나님과의 교제

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셨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를 추구하도록 부른다.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중심에 있도록 초대한다.

우리 역시 같은 증인의 삶으로 부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갈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 하시는 놀라움과 기쁨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롭게 정렬될 때 세상은 그 증언을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일기금
-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프 신박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대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종교탄압으로 변질된 정교분리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전체주의 국가들의 종교탄압

“전제 정치는 종교 없이도 통치할 수 있지만, 자유는 종교 없이는 통치할 수 없다.”(알렉시 드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

인간 도덕의 기준을 제공하는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토크빌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전체주의 정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종교다. 종교인만이 전체주의가 담고 있는 비도덕성과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를 내세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 종교탄압을 앞장선 이유다.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마약중독의 위치로 격하시켜 버렸다.

구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세우며 국가 무신론을 선포했다. 1918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령’을 통해 교회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교회 재산을 국유화했다. 1920년대 초에는 대기근을

핑계로 성물(聖物)까지 강제 몰수하고, 수만 개의 교회를 폐쇄하거나 창고, 무신론 박물관으로 개조해 버렸다. 공산주의 독재자 무마니야의 니콜라에 차우세스쿠는 수도 부쿠레슈티를 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수십 개의 역사적인 교회를 파괴했다. 종교 부처를 통해 모든 설교 내용을 검열하고, 거부하는 성직자는 감옥에 가두어 고문했다.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인 북한은 종교를 ‘외세의 침략 도구’로 규정하며 가장 가혹한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 1940년대 후반 ‘토지개혁’을 통해 교회 소유 토지를 몰수했고, 6.25 전쟁 이후 종교인을 ‘적대 계급’으로 분류해 숙청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평양의 교회터는 김일성김정일 시체 안치소가 되어버렸다.

일본은 침략기 동안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계몽에 앞장섰던 기독교 학교들을 폐쇄했다. 교단들을 강제로 통합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동하는 어용단체인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만들었다. 교회 종(鐘)까지 전쟁 물자로 빼앗아 갔다.

전체주의 정권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종교인들과 서로 유착되어 한편이 된다. 그들은 종교인의 도덕성은 뒷전으로 하

고 정권의 잘못과 비도덕적 행태를 비호하는 어용 행위에 앞장 선다. 이들의 목소리와 활동은 정권의 환영과 지원을 받는다. 반면 정권의 도덕적 문제와 어긋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종교인은 철저히 탄압한다.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종교행위를 금지시켰다.

◆전체주의 정권의 종교탄압 방식

전체주의를 이룩했던 국가들이 종교탄압에 가져다 쓴 공통적인 수사학이 있다. 이들은 선동과 악마화 선전, 누명 씌우기 등을 이용했다. 첫 단계로 그럴듯한 언어를 내세운 여론몰이다. 이들은 ‘애국’, ‘국민적 예의’, ‘인민의 자산’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폭력을 정당화한다. 다음 단계로 종교인들의 경제적 고립화다. 재산(토지, 건물)을 몰수하여 조직의 자생력을 파괴한다. 마지막 단계로 인신 구급이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개인을 반혁명 세력, 적대세력으로 매도한다.

최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종교탄압을 했던 국가들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 같은 염려와 위기감이 든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는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국교분리가 정확한 표현이다. 국가가 국교를 정하면 안 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종교탄압에 앞장선 정치인들은 본래의 의미와 동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한다.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를 왜곡 적용하여 종교탄압의 도구로 삼으려는 속셈인 것이다.

2026년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10명(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김준혁 김재원 권철승 염태영 이근태 이성윤 송재봉 서미화 진보당 손술)이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제안한 사유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인 제37조 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의 정권 강화를 위해 정교분리의 뜻을 왜곡해 종교탄압에 나설 체비다. 전체주의로 달려갔던 많은 나라들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 같아 불편하고 불안하다. 선을 넘어선 입법으로 권력 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핵심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징후

베네수엘라 정권이 사법부와 선거기관, 언론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했던 방식과 닮은 위험한 징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선거기관을 장악하고, 사법개혁을 내세워 대법원을 무력화시켰다.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국의 면허를 취소하고, 진정부 언론을 지원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정권 유지에 이용했다.

현 정권은 언론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 운영시키다가, 2025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방미디어)를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워가고 있다.

사법 3대 악법(법외국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켜 삼권분립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체주의 길을 가고 있다. 정부 인사는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

웠다. 대법관 증원법을 만들어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자신들을 지켜줄 인사들을 앉힐 작정이다. 수사관, 검사, 판사가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외국죄를 만들어 자신들의 강철 방패막을 만들었다. 재판소원제를 만들어 최후 도주로 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제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선거 개입 사건을 빌미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탄압에 나서려고 한다. 정작 통일교와 관련된 인사는 지방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상하지 않은가? 개별 범죄는 기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헌법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으로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종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과 종교를 가지고 있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종교는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반이다’라고 했다. 종교가 가진 위대한 힘은 도덕성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유다.

전체주의 국가들의 흑역사를 따라 가면 안 된다. 거꾸로 달려가는 열차를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다.

이란 공습에 ‘본능적 반미’ 드러낸 한미 내 친북 세력



로렌스펙 박사
북한자유연합 고문

1890년대 이반 파블로프의 개는 종소리를 음식과 연관 지어 종이 울릴 때마다 침을 흘렸습니다. 1930년대 후반과 1940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그 동맹 세력은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히틀러와의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박헌영과 그의 남한 공산주의 동료들은 1946년 초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지지했습니다. 2023년 말 발표된 김정은의 ‘두 개의 적대적 국가’ 정책 지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친북 활동가들은 북한의 기존 장기 정책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조직의 이름을 고분고분하게 바꾸거나 해산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명확한 지침은 이념적 일탈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자주 요구되지만, 전 세계 친북 세력의 조건반사는 이제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 북한의 직접적인 지시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친북 세력은 평양의 이념적 상징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마약 테러범 지도자 마두로를 붙잡았을 때나, 최근 미국이 이란의 테러 지원 정권인 이슬람 성직자 정권을 타격했을 때,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좌익, 공산주의, 특히 친북 단체와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트로츠키주의자들과 일부 다른 좌익 세력은 이란 정권과 미국의 행동 모두에 반대한다는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더 ‘전통적’이고 ‘주류’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극좌 단체와 활동가들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들의 분노를 오로지 소위 ‘미 제국주의와 시오니스트 침략자들’에게만 집중하며 기본적으로 이란을 방어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친이란 정권 및 반미 시위는 주로 사회주의해방당(PSL), 피플스 포럼(The People’s Forum), 코드 핑크(Code Pink), 그리고 김일성의 1950년 남침부터 필리핀 신인민군 반군의 살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침략 전

쟁과 테러 폭동을 지지하거나 변명해 온 광적인 친북-반대한민국 단체인 노드돌(Nodutdo)과 같은 소위 ‘평화 활동가들’에 의해 후원되고 직접 조직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옹호하거나 부인해 왔으며, 최근에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저지른 만행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해방당, 피플스 포럼, 코드 핑크는 중국 공산당 및 관련 개인들과의 연계 및 자금 지원 혐의로 1년 넘게 미국 의회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하이 기반의 친공산주의 역만장자 네빌 로이 싱엄(Neville Roy Singham)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코드 핑크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리더인 조디 에반스(Jodie Evans)와 결혼한 사이입니다. 미국 언론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싱엄과 그의 네트워크가 최근 몇 년간 미국 및 다른 국가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기타 극좌 단체에 수천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회주의해방당은 오랫동안 북한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으며 북한을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이 단체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은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서울에서 열린 친북 시위 및 기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그룹은 노드돌, 민족통일, 재미 동포전국연합회, 액션 원 코리아(Action One Korea),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등 재미 한인 및 기타 친북 단체들과 수년간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코드 핑크는 2015년 위민크로스DMZ의 북한 방문을 포함하여 많은 친북 행사에 참여했으며, 당시 단체 회원인 앤 라이트(Ann Wright)는 만경대에 있는 김일성의 생가에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위민크로스DMZ의 설립자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기반을 둔 북한 정보 요원들과 수년간 소통하고 만나며 협력해 왔습니다.

◆로렌스펙(Lawrence Peck)

25년 이상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와 극좌 활동가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연구해 온 인물이다. 그는 미국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로올라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북한 인권과 자유 문제를 다루는 단체인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적인 친북 및 반대한민국 청년 단체인 노드돌의 회원들 역시 평양과 뉴욕에서 북한 정보 요원들과 수년간 소통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노드돌은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테러 살인을 승인했으며, 회원들은 미국의 파괴와 한국의 ‘해방’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인간의 자유, 사회 정의, 민주적 권리, 경제적 성공의 빛나는 모델로 묘사합니다. 노드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박주현은 최근 사회주의해방당과 함께 뉴욕에서 열린 친이란 정권 집회에서 연설하며 미국에 대한 폭력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리더인 의사 사이먼 마(Simon Ma)는 샌프란시스코 집회에서 북한을 “국제 사회주의 혁명의 길잡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노드돌 회원 중 일부는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해제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의 일부 좌파 정치인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노드돌 회원들을 만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반 조치를 전형적인 거친 인사로 “강제 같은 행위”이자 “침략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친북 및 극좌 단체들이 미국의 이란 타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노동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미국은 오늘날 가장 공격적이고 무모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북한의 수사를 흉내 냈으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어에는 ‘유유상종(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이라는 말이 있고, 한국에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국민들이 곧 자유를 찾고 잔인하고 독재적인 이란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북한 정권에서 또 다른 동맹국을 빼앗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로렌스펙 저자의 허락을 받아 펜앤마이크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스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을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벤은 존스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 & Johnson

여호와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박진호 목사
인터넷 기독교 문서
사역자



◆나그네의 삶은 선택이 아니다

구약성경의 150편의 시편은 몇 가지 주제로 나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음을 찬양하는 역사시도 셋 있는데 본 시편은 그중의 하나다. 본 시가 다루는 역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언약을 맺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쁨으로 차지하게 된 것까지이다.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까지이다.

본문 앞의 1-11절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 감사 찬양했다. 이어서 12절부터 당신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는지 시작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적 표현이란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깨달은 바와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담아낸다는 뜻이다. 그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의 경과는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이해 해석 반응했는지 살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당시에 숫자가 적었다고 회상한다. 언약의 수혜자가 될 만한 특별한 자격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자신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다. 또 땅에서 나그네 되어 이 족속 저 족속의 땅으로 떠돌아다니는 중에 그분의 은혜와 권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스라엘의 최초 족

장들의 삶이 그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어도 이 땅에선 형통과는 거리가 먼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것이 현실적 안락과 형통이 인생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분향은 천국이며 이 땅에선 그곳에 이르러까지 잠시 우거(寓居)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스라엘의 육신은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신분이다. 요컨대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정확히 말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불러나왔다면 나그네 같은 삶은 선택이나 의무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풍요를 좌우하는 물질에만 제한 받는 자와 정반대여야 한다. 하루하루가 영원한 분향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당신의 백성에게 풍요를 약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잘 모르셨다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분의 뜻을 모르는 셈이며 신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그럼 이스라엘이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됨으로써 받은 복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른 이들의 훼방과 대적을 막아주신 것이다(14-16절) 쉽게 말해 가나안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굶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보호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데 장애가 되는 것만 제거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불러나왔다. 세상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산다. 반면에 신자는 이웃을 위해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살아 감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니 충족될

만큼의 삶의 여건을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끔 하는 뜻이다. 당연히 평생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말하자면 평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면 조금 지겹긴 해도 누구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종종 비참한 방식으로, 주로 고난의 모습으로 그것도 도무지 감당치도 못하고 심지어 이해하기도 힘든 정도로 이끄신다. 때로 신자가 상상도 못한 상황에 마주치게 하여서 거의 죽을 직전까지 몰아넣기도 한다.

야곱 가문도 기근을 만나 굶어죽게 되었다(16절) 그 전에 별 문제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을 때에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방 땅의 노예로 팔리게 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들짐승에 물려죽었다는 거짓 보고를 받는 바람에 그 후로는 큰 슬픔과 속에 지내게 되었다.

이런 저런 불행이 야곱 가문을 덮쳐도 그 배경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완벽하셨다. 전혀 하거나 부족이 없다.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도 그분의 완전하심에 두어야 한다. 요셉의 밭이 차고 메이고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18절)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19절) 요셉의 고난은 여호와와의 약속의 말씀이 이를 때까지 일시적인 고난이었을 뿐이다. 이만큼 신자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약속이 없다.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의 본질이다. 아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 아닌가?

그 의미를 더 깊이 파지자면 첫째, 하나님은 신자를 누명 고난 핍박에서 반드시 신원(伸冤)하여 구원해주시는 당신만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신자로서 당장은 그때가 언제일지 전혀 알 수 없다. 되어져 가는 상황을 잘 살피고 그런 판단을 도무지 할 수 없다. 때론 갈수록 고난이 더 겹친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다. 그러나 신자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 여호와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뿐이다.

둘째, 그분의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당신만의 완벽한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럴 신자가 겪는 문제와 고난은 그 계획된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필연의 과정이라는 뜻이 된다. 히브리인 노예 출신의 요셉이 인간적 계획과 수단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비참한 방식만이, 바깥 말해 신자가 죽도록 고난을 겪게 해서라도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

셋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 절대로 선하고 의롭다.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시에 신자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은 완벽하시다. 신자가 모르는 사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에 그분은 완벽한 계획을 마련하셨다. 그럼 그곳으로 가는 과정도 완벽하고 그 열매도 완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신자다
문제는 그 중간 과정을 보는 신자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이 완벽하니 그것을 거쳐야 하는 신자에게 현실적 불편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실제로 죽음과 방불한 흑암으로만 둘러싸인 절망에도 처한다.

그렇다면 믿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

야 하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도하고 인내하면 선한 결말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끝이 선할 것이라는 것. 최소한 그분의 뜻에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이다.

믿음이란 그래서 그 선한 결론을 잘 분별하여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런 삶에 그 결론을 제대로 적용해 나가는 실력이다.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견디기만 한다면 시작과 끝은 선하나 중간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된다. 또 신자 본인에게 발전과 개선이 없다. 주변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만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뜻이 이 땅에서 인고의 세월만 지내게 하고 그래서 인내력만 키우는 것이 다일까? 아무리 따져 봐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영광을 신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신자도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요셉이 부모 형제와 감격적인 재상봉을 한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 가문 즉, 언약의 백성을 기근에서 보호하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어 그 힘든 고생을 하게 만드셨다는 고백을 했다. 자기에게 그런 고생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그마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실현해나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사백 년이 넘도록 야곱 후손들이 또 다시 고된 노예 생활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그 오래고 고된 노예 생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다. 따라서 언제 출애

굽이 될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는 그들로서는 여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선조는,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중간과정에 가까이 동참하여, 대부분이 고난의 모습이지만, 자신을 수고 희생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단순히 참아내어진 후손의 믿음도 인내력 늘리는 수준밖에 안 된다. 육신적으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지라도 그 영혼은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언약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참 믿음을 후손에게 전해야 한다.

이는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시작도 나그네요, 끝도 나그네 상태. 결국은 신자의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의 언약에만 바탕을 둔 가치관과 인생관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믿음은 그것의 현실 적용이다. 세상 형통에 초점이 모이면, 아니 조금이라도 관심을 쏟으면 중간 과정은 괴롭기만 하다. 나아가 하나님 뜻은 물론 전개되어가는 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인내는커녕 불평과 의심만 늘어간다.

반면에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시작하여 나그네로 마친다는 인생관이면, 사실은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 자연히 그 중간의 고통도 별 것이 아니라 여겨진다. 대신에 그 불편함 가운데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 순종하게 된다.

언약 백성인 신자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끝날 때는 반드시 있고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만 기억해도 된다. 현재 감사와 경배를 선행한 신자들이 정말로 하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다. 따라서 언제 출애

공과교수 방법2: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교사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대표

교회학교에서 공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교재 내용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 공과는 "내용"이지만, 교사의 사명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같은 공과를 사용해도 어떤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남고, 어떤 교사는 지식만 남는다. 그 차이는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공과를 잘 가르치는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은 공과보다 아이를 먼저 보는 교사다. 공과를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가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질문한다.

"이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느끼게 해 주며,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할 때 말씀은 지식이라 경험이 된다. 공과는 글이지만, 가르침은 살아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셋째, 적용을 돕는 교사다. 많은 수업이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들은 막연한 결론보다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변한다.

이런 주에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해보자." "친구를 위해 기도해보자." 이처럼 삶 속에서 실천할 한 가지를 붙잡아 줄 때, 공과는 삶이 된다.

공과를 읽는 것과 가르칠 준비를 하는 것은 다르다. 좋은 교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살아 있는가?"를 점검한다. 교사가 감동받지 않은 말씀은 아이들에

게도 감동이 되기 어렵다. 가르침의 능력은 기술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서 나온다. 공과를 잘 가르친다는 것은 설명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이의 마음에 닿도록 돕는 것이다. 공과는 종이에 있지만, 가르침은 아이의 영혼에 남는다. 오늘도 교재를 넘기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때 공과는 끝나도, 말씀은 아이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될 것이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무기여 잘 있거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환관이 되어 이란의 독재 정권을 며칠 만에 축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의 꿈이 한 순간에 사라졌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이쯤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무기, 전자 무기로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라 한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은, 오늘의 무기 체제로 보면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는다. 특히 북의 3대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덩이를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이다.

고대의 무기는 창, 칼, 활, 방패였지만, 현대의 무기는 미사일, 탱크, 전투기, 무인 드론, 핵무기 등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은 무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현대 무기는 모든 과학 기술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신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과학 기술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과거 많은 전쟁의 경험과 북의 침략을 대비해 꾸준히 신무기 개발에 힘써왔다. 그러나 무기에는 과학 기술자들의 탐과 노력과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은 이른바 K-방산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유럽은 오랫동안 전쟁이 없어 군수 사업이 멈추어 있었지만, 한국은 북의 핵 위협에 대하여 첨단 무기를 꾸준히 생산해 왔었다. 그덕에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결국 선진국이 된 셈이다.

또 한국은 IT 세계 최강국에다 과학의 최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나라들은,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비행기와 K9 탱크, 레이저 무기, 그리고 현무 미사일 등 최첨단 신무기를 구매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필자는 과거 군종 장교로서 육군 보병학교 때, M이라는 소총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M 총구 끝 가스 마개에 'Pax'라는 글씨가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Pax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다. 즉 무기는 평화를 위해 있는 것이며, 전쟁도 결국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구실로 끊임없이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다. 이처럼 무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즉 무기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약자를 지키기 위한 무기라면 평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미친 독재자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을 때는 폭력이고, 재앙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의 손에서 무기를 뺏기 위해서 거대한 폭격을 했다'고 한다.

무기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A Farewell to Arms)'는 대표 작품이기도 하다. 원작인 헤밍웨이(A. Hemingway)는 제1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사랑과 전쟁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군대에 지원해 구급차장교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다. 전쟁 중에 영국 간호사 케서린 바를리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것은 작가 헤밍웨이의 체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애인과 함께 전쟁의 무의미를 깨닫고 탈영하여 스위스로 도망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화를 꿈꾸었지만, 주인공의 애인 케서린이 출산의 과정에서 죽는 비극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전쟁보다 사랑이 중요하다지만, 한편으로 인생의 한계와 고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1차 대전 이후, 만연하게 퍼져있던 허무주의(Nihilism)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소설가 노만 메일러는 세계 1차 대전 이후를 가리켜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라고 했다. 과거 우리 한국도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애인을 잃고, 친구를 잃었다. 또 어떤 사람은 팔을 잃고, 다리와 눈을 잃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을 잃었다. 이처럼 전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대를 만든다. 6.25전쟁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 민족은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의 부흥,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시장 경제, 기독 입국에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은, 결국 복음의 힘이고, 설교자들의 힘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그 무서운 전쟁을 극복하고, 실망과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무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도, 무기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는 없다.

"무기여, 잘 있거라!"

유럽에서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가 세속화가 아닌 교회의 내부가 비어 가면서 붕괴한 것이라 진단이 미국 북주주의 진영에서 나왔다.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을 문명화 습관, 기억으로 바꾼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나님의 북주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 of God)의 의장인 리처드 하웰 박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원인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속주의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비판했다. 과학이나 자유주의, 또는 "밖"에 있는 "도덕적 타락" 등 세속주의에 물든 게 원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이런 외적 요인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내부로부터 속이 텅 비게 된 게 진짜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럽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설명은 너무 단순하고, 현대 세속주의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라며 오늘 유럽 교회의 현실을 단순히 무신론자들이 논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귀결하려는 분위기를 경계했다. 이어 "유럽의 대성당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독교 가치'를 언급하며, 인구 조사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표시한다"라며 이런 현상을 "제자도 없는 유산, 순종 없는 기억, 회개 없는 정체성"에서 찾았다.

그는 기독교에 의해 형성된 유럽이라는 공동체가 예술과 음악, 도덕적 언어, 대학, 공적 상상력 등 모든 분야에서 있어 기독교적 전제에 깊이 물들어 세계관을 구성하는 틀로 작용한 그 속에 "독이 숨어 있었다"라고 했다. 기독교가 문명 자체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문화, 복음과 권력, 세례와 소속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순간 교회의 쇠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디트리히 본회퍼가 언급한 "값싼 은혜(cheap grace)"라는 표현이 강력한 울림을 준다고 "회개 없

유럽교회 쇠퇴, 그 속에 한국교회도 있다

는 용서, 순종 없는 소속,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제공하는 법을 배우는 바람에 오늘 십자가에 대해 참모하는 유럽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했다.

하웰 박사가 '유럽의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넘겨준 결과였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짚은 유럽교회의 현실은 한국교회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국 교회에 스며든 '값싼 은혜가 영적인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렇다. 한국교회에 모이는 수와 재정 규모에 있어 세계적인 교회가 준비하지만, 회개와 거룩함에 있어선 이미 유럽교회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문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습관이 되었으며, 기억이 되고만" 유럽교회의 전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처음의 '믿음'으로 돌이킬 것인가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가 세속화가 아닌 교회의 내부가 비어 가면서 붕괴한 것이라 진단이 미국 북주주의 진영에서 나왔다.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을 문명화 습관, 기억으로 바꾼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나님의 북주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 of God)의 의장인 리처드 하웰 박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원인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속주의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비판했다. 과학이나 자유주의, 또는 "밖"에 있는 "도덕적 타락" 등 세속주의에 물든 게 원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이런 외적 요인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내부로부터 속이 텅 비게 된 게 진짜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럽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설명은 너무 단순하고, 현대 세속주의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라며 오늘 유럽 교회의 현실을 단순히 무신론자들이 논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귀결하려는 분위기를 경계했다. 이어 "유럽의 대성당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독교 가치'를 언급하며, 인구 조사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표시한다"라며 이런 현상을 "제자도 없는 유산, 순종 없는 기억, 회개 없는 정체성"에서 찾았다.

그는 기독교에 의해 형성된 유럽이라는 공동체가 예술과 음악, 도덕적 언어, 대학, 공적 상상력 등 모든 분야에서 있어 기독교적 전제에 깊이 물들어 세계관을 구성하는 틀로 작용한 그 속에 "독이 숨어 있었다"라고 했다. 기독교가 문명 자체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문화, 복음과 권력, 세례와 소속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순간 교회의 쇠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디트리히 본회퍼가 언급한 "값싼 은혜(cheap grace)"라는 표현이 강력한 울림을 준다고 "회개 없

는 용서, 순종 없는 소속,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제공하는 법을 배우는 바람에 오늘 십자가에 대해 참모하는 유럽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했다.

하웰 박사가 '유럽의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넘겨준 결과였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짚은 유럽교회의 현실은 한국교회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국 교회에 스며든 '값싼 은혜가 영적인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렇다. 한국교회에 모이는 수와 재정 규모에 있어 세계적인 교회가 준비하지만, 회개와 거룩함에 있어선 이미 유럽교회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문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습관이 되었으며, 기억이 되고만" 유럽교회의 전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처음의 '믿음'으로 돌이킬 것인가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다.

한반도 떠나는 주한미군 방공무기들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공무기가 속속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보도한 게 뒷받침해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조만간 중동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서 미군 대형 수송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공식 확인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중동으로 차출한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만이 아니라 사드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사

드는 한국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 방어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다. 이런 사드가 한반도 밖으로 빠져나가면 대북 다층 방어망에 구멍이 뚫리는 게 불가피하다. 이게 중국의 온갖 보복에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염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중동 사태 속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주한 미군의 무기 반출은 지난해 한미 사이에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한 '동맹 현대화' 합의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

한다.

중동의 현 상황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에도 그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쟁이 길어지면 한반도를 빠져나간 사드가 언제 돌아올지도 가늠이 없게 된다.

정부는 미군의 핵심 전력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당장 대북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을 언급하며 대북 억제 능력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대는 우리를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언제든 핵무기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이란 걸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예측 불가 효전 집단을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사라진 상태에서 '군사력 세계 5위'는 그저 신기루일 뿐이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739-8119 광고문의 010-2700-3297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02-739-8119 또는 press@cdaily.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 내용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제1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결과 보고서' 발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사회적 접근 필요성 제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제1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사회 자살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1월 28일 의료, 심리,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제1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자살 문제를 개인의 심리적 위기나 병리 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구조와 정책 시스템 전반에서 바라봐야 할 복합적 과제로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의 자살문제는 복합적인 사회구조 요인이 얽힌 난제이며, ▲자살예방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로 ▲의료/심리/사회/경제 등 다양한 전문 분야

가 참여해 시스템적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불신, 불안, 불만이 누적된 '3불 사회'로 진입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환경이 승자독식 경쟁과 양극화 심화, 공동체 해체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삶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 정책 중심 접근, 부처 간 데이터 분산, 지역 간 실행 역량 차이 등 현재 자살 예방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자살은 우울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상대적 박탈감과 울분 등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적 요인이 자살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

한 입체적 분석과 효과 검증을 위한 사회적 실험 ▲초·중고 행복 교육 확대, 자살 유증 지원, 생명 경시 풍조 개선, 회복 탄력성 연구 강화 ▲지자체 자살예방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및 민간 NGO 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생명보험재단 주관의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인 이재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사회 시스템의 고장을 보여주는 '사회적 부검 리포트'와 같다"며 "자살 문제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 환경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발표된 국가 통계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5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전년 27.3명보

다 상승하며 13년만에 자살률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40대(4.7명), 50대(4.0명), 30대(3.9명)의 증가 폭이 두드러지며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식 속에서 위기 개입과 예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강 교량 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SOS 생명의전화', SNS 채널을 활용한 청소년 자살상담 '다 들어줄 개' 및 '마들렌',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며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범국민 자살예방 인식 개선 SNS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명보험재단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 '생보사(생명)을 보듬는 사람들'을 통해 'SOS 고민택시'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이 콘텐츠는 청년들의 취업, 직장 문제, 대인관계, 주거 불안 등 현실적인 고민을 주제로 공감과 대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제1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자살 문제를 사회 구조적 과제로 다루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던 모습. ©주최 측 제공

를 이끌어내며 생명존중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도 정부·학계·현장을 잇는 민간 플랫폼으로서 자살예방 정책 논의와 현장 사업을 연

결하고, 실질적인 예방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내달 29일 12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제2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을 앞두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문제와 해결방법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헬렌켈러센터, 시청각장애아동 교육 국제세미나 개최

일본 교육 사례 공유... 국내 시청각장애아동 지원 체계 강화 모색

보건복지부 시청각장애인 지원전담기관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시청각장애아동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헬렌켈러센터는 오는 3월 23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6 시청각장애아동 교육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예탁결제원 KSD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일본의 시청각장애아동 교육 지원 체계와 실제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국내 시청각장애아동 교육과 복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시청각장애아동 교육 국제세미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청각장애아동은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상 교육과 의사소통,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국제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일본 요코하마 혼맹학교의 호시 유코 교장이 주요 연사로 참여한다. 호시 유코 교장은 일본 시청각장애아동 교육 분야를 대표하는 전



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시청각장애아동 지원 시스템과 교육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일본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과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청각장애아동 교육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늘봄재가복지센터, 안양시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연 400만원 후원

2026년 3월 10일 늘봄재가복지센터(센터장 김수정)가 지역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연 4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 계기가 됐다. 늘봄재가복지센터는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이어왔고,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

늘봄재가복지센터 김수정 센터장은 "평소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원을 하고 싶다는 마

음이 있었다"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함께 일하면서 장애인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희 센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박용구 관장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 후원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고용을 넘어 지역사회 나눔과 연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성민원 제공



후원금 약정사진.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제8회 해누리보치아대회' 참가자 모집

양천해누리복지관(관장 김경환)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8회 해누리보치아대회를 4월 11일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인 1팀(후

보선수 1명 포함)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선착순 32개 팀이며, 지역별 1순위 팀은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양천해누리복지관 홈페이지(www.ycsuppor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sej@yycsupport.or.kr)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 상금은 ▲1위 50만 원 ▲2위 30만 원 ▲공동 3위 20만 원(2팀) ▲공동 5위 10만 원(4팀)의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더 많은 참가자에게 참여의 기

쁨과 격려를 전하고자 시상 범위를 8개 팀으로 확대했다.

복지관 김경환 관장은 "해누리보치아 대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전국의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참여해 즐거운 경쟁과 소통의 시간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을 위한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공을 던지거나 굴러 흰색 표적 구(색볼)에 가장 가깝게 위치시키는 팀이 점수를 얻는 경기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해 보치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8회 해누리보치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해누리복지관 배움문화팀(070-4804-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앤코

대표 최훈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욕실자재 전문회사 **이견비앤코(주)**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 6길 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론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2026년 경기예술신학원 학/생/모/집

설립배경
문화전쟁의 시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목적을 둔다.



원장 장대수 박사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Ph.D 철학박사)

경력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세익스피어, 오셀로, 말괄량이길들이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싸르드르작, 이강렬연출(주연)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선객: 주연

개강: 3월 학제: 3년
수업: 매주 월,화(오후6시) 학과: 연극신교학과

입학문의: 010-6325-3916
주소: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83 현대프라자 4층
지구촌 복음방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대표 김덕검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력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감탄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율곡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리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충남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법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침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회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시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황명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1

신간 '예수를 만나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깊이 탐구하도록 안내하는 책 《예수를 만나다》가 출간됐다. 수서교회를 담임하는 황명환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의 사역보다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집중하도록 돕는 신앙 안내서다.

저자는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로 규정하며,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마르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의 복음, 압축된 복음"이라 부른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복음의 핵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이라는 것이다.

책은 요한복음 1~10장의 본문을 36개의 메시지로 풀어내며 독자들이 예수와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감정적 신앙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의미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특히 요한복음이 당시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철학적 개념과 사유가 담긴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피며, 성경의 문맥과 역사적 상황을 함께 설명해 독자들이 복음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책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 이야기들을 다시 질문하게 만든다. 예수는 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불리는가,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제자는 왜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는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했는가 등 성경 속 장면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독자들은 성경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다시 묵상하게 된다.

제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도 책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저자는 참된 제자의 고백은 "내 것은 없다"는 고백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과 소유,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천천히 펼쳐 읽으며 예수를 만나라고 권한다.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 머물다 보면 결국 예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신간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성장이 멈춘 교회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교회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 책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가 출간됐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 전문가이자 목회 컨설턴트로 알려진 톰 레이너가 집필한 이 책은 《죽은 교회를 부활시키라》,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라》에 이은 교회 진단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저자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현신의 약화'로 진단한다.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부스러기 정신(leftover mentality)"이라 표현하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한 뒤 남은 시간만 교회에 할애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함께 '영적 유목민'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 설교 등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저자는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교회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우는 관계의 장소라는 것이다.

책은 교회 현신이 약화된 이유를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분석한다. 오락과 여가 활동의 확대, 경제적 여유 증가로 인한 가치 변화, 교회 출석에 대한 문화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교회의 중심성이 약화됐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매 역할을 하며 현신 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동네 교회에 속한 삶이 영적 활력과 공동체적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한다. 교회 활동은 부담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더 큰 목적 속으로 이끄는 통로라는 것이다.

이 책의 핵심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다섯 가지 현신의 원리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금진적인 기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성실한 예배', 제자도를 배우는 '진밀한 소그룹', 아낌없이 나누는 '순전한 나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 전도'가 그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신이 교회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최승연 기자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 제12권 2호 발간

교회재산 공공성·차별금지법 등 교회 관련 법률 현안 논문 수록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회장 장 서현제 교수)는 최근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교회와 법」 제12권 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교회법학회는 발간사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교회의 소유와 주권은 사람이나 제도, 재산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법 질서 내에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 공동체'이며, 법적 주체인 법인사단으로서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형태로 소유한다.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재산이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

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사적 소유인 총유 재산은 교회정관과 총회결의에 따라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의 막대한 재산은 선대의 헌금과 부동산 가액 상승의 결과인데 재산 형성에 별로 기여한 바 없는 현재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법학회는 2025년 11월에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제36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회재산 귀속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신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며 "학술세미나에서는 '교회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기초발제에 이어 '교회재산의 소유형태로서의 총유제도', '교회 재산 귀속에 관한 미국 판례 이론', '지교회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의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논문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 번호에 '특집논문'으로 게재하였다"고 했다.

또 "이외에도 [일반논문]으로 '혼인제도의 본질과 가족질서의 보호', '동성 커플 자녀 양육에 대한 의학적 관점' 논문들이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되었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제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2대 국회에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 중에서 교회법학회는 3개의 차별금지법안, 정교유착방지법안(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회의 의뢰에 따라 법안검토건의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입법동향'으로 게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목사의 교회에서의 설교에 선거법 위반의 골레를 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며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속 법정은 여전히 수많은 교회소송에 제기되고 있다. 이를 모아 '판례동향'으로 게재한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3월, 작가들의 말말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택하는 일은 마지않고 적 통아저씨 게임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맞는 길과 틀린 길이 있으나 단서는 불분명한 복불복 게임입니다. 막대기를 하나씩 통에 꽂아 보다가 맞으면 다행이고, 맞지 않은 구멍을 택하여 통아저씨가 튀어나오면 낭패인 것이지요.

기도 중에 든 확신에 '하나님 뜻'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등의 표현을 쓰며 자신의 권위를 은근슬쩍 빙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 중에 자매님과 사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보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도 '약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좀 덜 적합한 길일 뿐입니다. 이재호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부모는 아이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잘됨'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단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진짜 잘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기신 눈물의 방향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의 위로를 넘어서 영원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부모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자녀의 영혼이 문드러지는 혹독한 시간 속에서 그 곁을 온전히 지켜 내지 못하는 부모의 부재,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아픈 한계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혼자 서 있다는 감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서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지근하다고 해서, 서운함이 크다고 해서, 나까지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곁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서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눈물 섞인 고백입니다.

송희진, 우지연 '신앙은 왜 대물림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온전한 관계 회복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살림'이라고 말합니다. 삼위 일체의 이러한 역동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입니다. 이는 '상호 내재' 또는 '서로를 안에 품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 위격이 서로를 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며, 함께 거하며, 하나로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일치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십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서로를 열어줍니다. 그리하여 공간을 내어줍니다. 삼위일체는 스스로 주체이면서도 '너를 위해' '나를' 내어줍니다.

모종현 '다시 읽는 복음'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가뭄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적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효록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를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55)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 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사 53:7-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배였지만 그것은 잠시 불과하였고 곧 승리의 역사를 알리는 광과례가 만천하에 울려 퍼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이 멎으시기 직전 하늘이 울었고 땅도 울었다. 우주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잠시, 아니 순간의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늘의 울음도 땅의 울음도 순식간에 멎어 버렸다. 하늘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찢어져 내리면서 승리의 광과례가 만천하에 울려 퍼졌고 천군천사가 합창하는 영광의 찬양이 온 천하에 매아렸다. 그것은 인간의 말과 글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장엄한 순간이었고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다 볼 수조차 없는 찬란함과 눈부심, 거룩함과 영광의 순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한 것이다.

과 조용한 승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권세와 능력을 실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승천과 같은 사건들은 인류역사상 그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는 차원의 역사적 사건들로서 그러한 사건의 당사자라면 누구라도 그 사실을 만천하에 광고하고 자랑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자신의 엄청난 사건을 그저 담담하게 진행시켰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전을 의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동적 소문이 지금까지도 심심치 않게 주장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침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동분서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바쁜 자는 강한 자가 아니다. 강한 자는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강한 자는 다만 자신의 역사를 진행할 뿐이다.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할 필요성은 약한 자에게만 존재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엄청난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진행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와 권위를 아울러 실감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 법정에서의 재판보다 더욱 장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고 십자가에 달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으며 민초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송하던 군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옷마저 벗기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벗은 몸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민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침까지 벨 으면서 조롱하였고 심지어는 살인강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다. 참으로 망극한 일이고 참으로 슬픈 일이고 참으로 참담한 일이었다. 그것은 정녕 하늘이 무너져야 할 일이고 땅이 꺼져버려야 할 일이었다. 세상이 온통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려야 할 일이었다. 세상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메시아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하여 메시아께서 죽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에 참으로 엄청난, 상식을 초월하고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형이상학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이다. 메시아께서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감수 하시면서 마지막 숨이 멎으시는 그 순간까지 저들의 잘못을 변명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보통이나 패배가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분명히 보통과 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그 짧고도 위대한 역사를 마감하고 사도교회들에게 그 역사적 바통을 넘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인류역사상 뒤 흔들어 놓고도 남음이 있는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사망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다시 살아남을 만천하에 광고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을 비롯한 몇몇 성도들에게만 조용하게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의 승천도 부활과 같은 경우였고 같은 상황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마무리를 한 후 그 바통을 제자들의 교회들에게 넘기고 그들만이 보는 가운데서 조용하게 승천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용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등등은 인류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일반적 인간차원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역사학자들의 논란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종교학적 차원에서 논증할

때에 종교를 창설한 자나 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에 대해서 신격화시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 종교의 위상과 권위와 신실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도자나 핵심인물들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출생이나 자라온 과정을 비롯한 일생에 관하여 수많은 전설적, 신화적 설화들을 만들어 내었고 그리하여 상식을 초월하는 설화들이나 심지어는 전혀 만화 같은 설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학자이면서도 종교의 범주를 초월하여 종교를 이해 하려는 자유주의 종교학자인 솔라이 르막히조차도 그 위대성과 신비성에 매료되어 ‘인류역사상 다시 존재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적 인간’이라는 찬사를 할 정도로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지나치게 할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한다. 성경은 30여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함에 있어 그가 사역하였던 3년여의 기간에 대한 활동사항과 그의 가르침만을 언급할 뿐 심지어는 그의 탄생일자까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대단한 일도 엄청난 일도 신비한 일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연적인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품위상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지 아니하시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을 역사적으로 부각시키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에 의문을 품는 자들을 침묵시키신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립한다.

탄생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출생)에 대한 실재성과 역사성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강림을 부인하고 ‘가현적 강림’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환상적 강림’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의 추대에 크게 고무되어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처하였다고도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과 역사성은 많은 기록문서들을 통하여 입증된다.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모두 소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을 소개한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이스라엘라이프

족장들의 이동경로 (4)



◆ 요셉의 이동경로 ◆

도단 ↓ **애굽** :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에서 시작하여 후에 총리대신이 됨 (요셉 30세)
↓ **고센** : 부모형제와 재회, 고센 땅에서 400년간 정착
도단 :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족 속 대상에게 은 20개에 팔아 넘김. 길에서 배우는 세계와 여행 이야기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Romans 8:18 NIV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뜻이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참석한, 존재하는’의 뜻이 됨
- suffering: 고난(苦難), 고통, 괴로움
- worth +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는
- reveal: 드러내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의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Galatians 6:8 NIV
Whoever sows to please their flesh, from the flesh will reap destruction;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 the Spirit: 성령(聖靈)
- eternal life: 영생(永生)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A B C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목회자를 위한 주해묵상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빛으시기까지...**

1. 오늘의 말씀 : 창 1:26-23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

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 시작 기도

아버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내 영혼이 당신의 품을 떠나 살수 없나이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중심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쫓구체내나이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심히 악한 것뿐인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자복하오니 보혈로 정결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영의 생각으로만 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 본문 주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땅은 형태가 없이 혼돈하고 비어 있어 공허하였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으므로 형태가 생겼고 빈공간이 채워졌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의 생성과 충만의 역사이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신다(26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26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1차적으로 피조세계의 통치, 곧 자연통치의 기능에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27절).

사람은 자연통치 기능과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 존재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으로서 관계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개별성을 동시에 함의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28절).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였으나 사람은 창조하신 후 '말씀하셨다'. 이것이 사람이 받는 원초적인 복이다.

사람은 말씀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할 것이다(28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29절).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30절).

이로써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21).

천지와 만물, 사람을 엮어 놓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2절).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3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어거스틴 이래 대부분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내적 속성으로 이해하였다. 즉 하나님과 공유되는 속성인 인격성, 도덕성 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20세기 들어 칼바르트와 에밀 부르너 등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레오나르드 벌두인은 자연통치기능으로, 벌카우어등 복음주의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표현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맥도날드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됨'이라고 주장하였다(이상, 말씀묵상이란 무엇인가, 139p).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고후 4:4; 빌 2:6; 골 1:15; 히 1:3).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사람 아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그림자)이다(롬 5:14).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완성되며, 그것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전 사람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성취이다(1:2).

이렇게 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리도록 지음 받았다. 이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지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다.

칼 바르트는 1장 28절, "하나님이 복주시고 말씀하셨다"를 가리켜 '언약적 교제의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지복은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언약적 교제의 존재에 있는 것이다. 그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피조세계로 하여금 신적 주권의 위임성을 갖게 한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뜻대로 부름 받은 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이다(롬 8:28).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그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4. 나의 묵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가 되었다(고전 15:22a).

하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모습은 아들의 형상보다 아담의 형상이 더욱 질게 드리워져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대로 빛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어 가시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충돌된다.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

대로 빛어 가시는 상황에 저항하며 벗어나고자 한다. 나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며 거스른다. 하나님이 빛어 가시는 상황에 항복하기까지 안식이 없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다.

악인은 평강이 없어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쫓구체낸다(사 57:20).

뒤틀려져 격동하는 영혼을 부여잡고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탕자 같이 비참해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 드린다. 아들의 죽음 안에서 나를 용납하신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이 빛어 가시는 상황을 받아들이니 내 영혼에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선하신 역사가 나를 살린다. 다시 안식이 임하며 평강이 임한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나를 빛으소서. 아들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라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묵상 기도

아버지!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가 지 안식이 없나이다. 오늘도 나를 빛으소서. 아들의 형상으로 빛으소서. 모든 상황 앞에 다만 나를 쳐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나를 빛으소서. 아들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라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형섭 목사



동성찬 묵상

신앙의 쫓대

사탄은 결코 우리가 싸움 없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우리와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려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표는 단지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맞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문제로부터 도망치고픈 유혹은 계속되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을 건디어 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굳건히 서서, 사탄을 물리치는 법을 배우야 합니다.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탄은 곧 물러날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단순함이 주는 기쁨」 중에서 / 출처: 햇볕같은이야기

건강상식

치아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음식 중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가짜 음식들이 많다고 한다. 항상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길 희망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는 요즘엔 자가 직접 챙겨먹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몸에도 좋고 치아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일단 충치를 유발하는 당분이 많거나 당분이 오래 입안에 정체되어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달콤한 설탕음료, 탄산음료, 캔디,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캐러멜은 설탕이 많이 들어 있을 뿐더러 끈적하기까지 하므로 치아에 오래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하기 쉽다. 차아에는 우유, 치즈, 멸치, 생선 등과 같은 알칼리성 음식이 좋다. 우유는 안에 들어있는 무기질 성분이 침의 분비를 촉진시켜 충치 발생률을 줄여주고,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입안을 중화시키고 에나멜에 밀착되어 무기질이 녹아 나오는 것을 막아준다. 물론 칼슘도 많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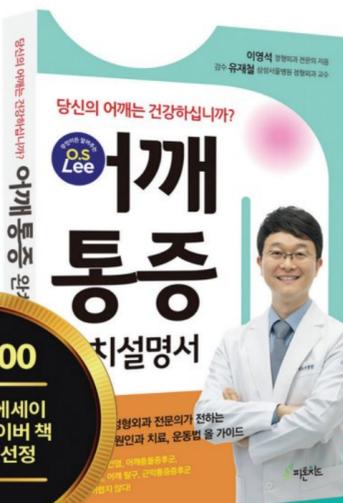
말차는 갈슘의 왕이라 불릴 만큼 갈슘 함량이 뛰어나다. 생선, 특히 등이 푸

른 생선에는 불소도 많이 들어있어 치아를 단단하게 해줄뿐더러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다. 이외에 다시마, 미역과 같은 해조류도 좋다. 콩, 녹황색 채소류도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주므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소와 과일류처럼 섬유질 식품은 씹으면서 치면을 단단하고 깨끗하게 해주며, 여러 가지 비타민이 도움을 준다. 특히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많아 면역력을 높여주고 치아미백 효과도 볼 수 있다.

색깔을 내는 물질을 파이토 케미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입 속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잇몸병과 충치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건포도, 녹황색 채소, 포도나 사과, 딸기와 같은 색이 진한 과일, 토마토, 두부, 두유, 흑미밥 속에 많이 들었다고 하니 이를 이용한 식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것이다. 세로토닌은 식욕 억제제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은혜의 샘물 성도, 기름부음 받은 자 (2)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외적인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있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었고, 이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다. 또 사도행전 19장 5-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초신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초대교회는 침례 직후에 기름을 찍어 이마에 바르며 십자가를 그어주었고, 안수하였다. 이는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성스런 견신례의 전통이었다. 이 전통이 말씀과 은혜사모에 치중하는 개신교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일부 교단에서만 입교예배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에게 견신례를 행할 뿐이다. 어찌 보면,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기름부음과 침례는 결국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성례였고, 성령의 임재와 증거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자의 수행자가 되는 자격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성서는 예수와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는 물론이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해아릴 수 없이 많은 표적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기름부음 받은 자요, 특별히 '뿔한 자란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 둘 일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작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책을 모두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는 예언자의 직책을 수행했을 뿐이지, 왕과 대제사장직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 예수는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 당시에는 로마당국이 임의로 점령지역에 왕과 총독을 임명하고 있었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말 잘 듣는 허수아비로 임명했던 때였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했던 메시아는 가장 이상적인 위대한 통치자로써 정치, 군사, 종교에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할 특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인물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로부터 예수는 왕으로써, 대제사장으로써, 대예언자로서 높임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떻게 신앙 고백 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이 이해한 그리스도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해한 방법과 전혀 달랐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다윗 때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아 줄 정치적 지도자로 여겼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만 왕의 왕으로써, 또 친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불편함을 제거시키는 화해제물이 되심으로써 종보자와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신 대제사장으로써, 또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대예언자로서 이해했다.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만 왕의 왕으로써,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로써(골 3:11), 창조자(창 1:1), 창조자(창 1:1), 창조자(창 1:1)의 주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대제사장으로써(히 4:15), 하나님의 숨은 비밀과 구원의 소망을 친히 드러내신 대예언자로서 고백되고 있다(히 11:3).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즉 주님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만에 강림하신 성령의 강력한 증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상황적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설명할 계획이지만, 주제인 그리스도인에 관한 중요하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메시아의 세 가지 직책을 위임받은 작은 그리스도란 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자아와 유혹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신앙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예언자의 삶

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다짐들이 되는 현신적인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작은 그리스도란 점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 둘 일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칭호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유(행 20:28)라고 말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말한다(고전 12:27; 엡 1:23, 4:12, 5:30).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한 바울의 말대로(고전 12:13),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성스런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곧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롬 8:1)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마 16:16), 그 분을 생명의 구세주로 자신의 중심에 모신 사람을 말한다(롬 8:9). 이렇게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롬 10:9) 믿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름부음 받은 자요, '뿔한 자'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작은 그리스도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교회오빠

나는 사랑을 택한다

나는 사랑을 택한다. 조용하다. 이른 시간이다. 커피는 따뜻하다. 하늘은 아직 어둡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다. 새 하루가 가지개를 켜고 있다. 몇 분 후면 새 날이 당도할 것이다. 먼동이 트면서 요란한 소리로 하루가 밝을 것이다. 새벽의 정적은 가고 낮의 소음이 찾아올 것이다. 고요한 고독은 가고 인간들의 숨 가쁜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결정할 일들과 마감 날짜를 지킬 일들이 이른 아침의 은신처를 해집고 들어올 것이다. 다음 열두 시간 동안 나는 하루의 온갖 요구에 부딪칠 것이다. 지금 선택해야만 한다. 갈보리 때문에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선택한다. 나는 사랑을 택한다. 어느 사건도 미움을 정당화할 수 없다. 어느 불의도 원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는 사랑을 택한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

는 것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기쁨을 택한다. 모든 상황 속에 내 하나님을 모셔 들일 것이다. 냉소적이 되려는 유혹을 물리칠 것이다. 그것은 게으른 사상가의 도구일 뿐이다. 나는 사랑을 하나님께 지음 받은 인간 이하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만날 새로운 기회로만 볼 것이다. 나는 평안을 택한다. 용서받은 자로 살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래야 나도 살 수 있다. 나는 인내를 택한다. 세상의 불편함을 무시할 것이다. 내 자리를 뺏는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내줄 것이다. 줄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할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쌓이는 업무에 주먹을 내지르기보다는 기쁨과 용기로 맞이할 것이다. 나는 친절을 택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친절할 것이다. 그들은 외롭기 때문이다. 부유한 자들에게 친절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기 때문이다. 불친절한 이들에게도 친절할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선을 택한다. 속임수로 1달러를 취하느니 차라리 빈손으로 갈 것이다. 잘났다고 뺨기느니 차라리 무시당할 것이다. 남을 비난하느니 차라리 내 잘못을 털어놓을 것이다. 나는 선을 택한다. 나는 신실함을 택한다. 오늘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 채무자들은 나를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 동료들은 내 말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는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을까 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온유를 택한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온유해

지는 길을 택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찬양할 때만 있을 것이다. 주먹을 불끈 쥐는 일은 기도할 때만 있을 것이다. 요구하는 일은 나 자신을 향해서만 있을 것이다. 나는 절제를 택한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이 몸이 죽은 후 내 영혼은 하늘을 날 것이다. 나는 썩어 없어질 것이 영원한 것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절제를 택한다. 나는 기쁨에만 취할 것이다. 믿음에만 빠질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향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만 배울 것이다. 나는 절제를 택한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 그 열매들에 나의 하루를 바친다. 뜻대로 잘되면 감사할 것이다. 실패하면 그분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이 하루가 다하면 나는 배께에 머리를 높히고 안식할 것이다. 창골산 봉복사 제공

향유욕합

고흐의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 자신은 자신에 대하여, 다 알 수 없는 미궁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엔 두 눈을 바로 뜨고 대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 이런 점에서 고흐는 무서운 존재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대면하고 있으니. 어떻게 고흐는 이토록 강렬하게 자

신을 대면할 수 있을까 고흐는 고흐로서 존재하고 싶은 열렬함, 열정적인 자기 사랑, 이것이 자기 폭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실로 위험한 일이다. 누구나 옷을 입고 살아가려는데, 홀로 옷을 벗는 용기는 위대한 것이다. 삶의 안전핀을 뽑은 것이다. 고흐는 안전핀을 뽑고 존재의 지뢰 미확인 지대에서 춤을 추었다.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답콕·은구, 마약 중독 예방·회복 협력 업무협약 체결

마약 중독 예방 협력 강화... 답콕과 은구, 예방·치료·회복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추진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대학을위한 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 답콕(DAPCOC)과 사단법인 은구가 마약류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 답콕은 최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단법인 은구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은구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생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가 청소년과 대학가까지 확산되면서 예방 교육과 회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방 활동과 회복 지원을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사회 전반의 마약 예방 인식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추진**

이번 협약을 통해 답콕(DAPCOC)과 사단법인 은구는 마약류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마약 중독 예방 교육과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편, 대학생과 청소년, 일반 시민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대별·환경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기반의 예방 교육 콘텐츠와 캠페인을 공동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독 예방과 회복 관련 자료



답콕(DAPCOC)과 사단법인 은구가 마약류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답콕

와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홍보 채널을 연계해 마약 예방 인식 개선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부터 치료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생·청소년 중심 예방 활동 강화’**

답콕(DAPCOC)은 대학 캠퍼스 중심의 마약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며, 사단법인 은구는 중독 문제 대응과 회복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대학 캠퍼스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온 답콕과 중독 회복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은구가 협력함으로써 대학생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콕 박상규 사무총장은 “최근 마약 문제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공공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과 중독 회복 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공동체 기반의 마약 예방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공동 책임’**

사단법인 은구 남경필 대표도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하며 마약 문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 대표는 “최근 마약 문제가 청소년과 대학가까지 빠르게 확산되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공동 책임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답콕과 함께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캠페인, 콘텐츠 개발,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 전반의 중독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답콕(DAPCOC)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학 내 예방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예방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대학에서 약 30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매주 마약 예방 세미나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은구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마약 예방과 중독 회복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2024년 3월 설립된 이후 예방 교육과 캠페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연결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연 기자

한국기독교학생회 IVF, 신입생 연결 위한 ‘IVF CONNECTING’ 진행

전국 IVF 구성원 참여... 캠퍼스 신앙공동체와 신입생 연결 돕는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생회 IVF가 신입생과 캠퍼스 공동체의 연결을 돕기 위한 ‘IVF CONNECTING’ 프로젝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IVF CONNECTING’은 전국의 IVF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신입생들을 캠퍼스 신앙 공동체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대학 신입생들이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IVF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성경을 읽고 질문하며 해석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걸어가는 공동체적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일상의 의미를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IVF 측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교나 경쟁, 증명이 아닌 진정한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신앙 안에서 온전한 변화와 함께 자신다운 삶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VF 관계자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IVF”라며 “말씀을 통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과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깊어지는 신앙의 여정,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는 변화의 순간을 IVF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에 있는 26학년 신입생이나 IVF가 필요한 대학생들이 있다면 IVF로 초대해 달라”며 “신입생의 소속 캠퍼스에 지인이 없더라도 IVF가 연결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학생회 IVF는 전국 150여 개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학원 복음화협의회(학복협)에 소속된 복음주의 학생운동 단체다. 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v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동 기자



목원대 선교훈련원, 1학기 개강·수료예배 개최

신입생 22명 입학·졸업생 15명 수료... ‘말씀과 기도 위에 선 실천적 선교 인재 양성’

목원대학교 선교훈련원이 ‘2026학년도 1학기 선교훈련원 개강·수료예배’를 최근 대학본부 지하 1층 유니버시티홀에서 열고 새 학기 선교훈련 사역을 시작했다

고 최근 밝혔다. 이번 예배에서는 52기 신입생 22명의 입학과 함께 졸업생 15명의 수료를 축하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목원선교훈련원은 1999년 ‘남부 해외 선교훈련원’으로 출발해 2001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이후 선교 교육과 현장 체험, 영성 훈련, 공동체 활동을 아우르며 학내 대표 선교훈련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훈련원은 성경공부와 선교학, 문화 이해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선교지 방문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생과 성도들이 선교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예배는 이기현 목원선교훈련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찬송(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과 김민우 목사의 대표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봉독, 특별 찬송 ‘사랑’에 이어 최종호 감독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예배 후에는 학사보고와 수료증 수여, 축사와 격려사 순서가 이어졌다. 수료증은 이희학 총장이 직접 수여했으며, 전석범 목원선교훈련원 이사장이 격려사를 통해 훈련원생들을 축복했다.

이번 학기 선교훈련원에는 김경희 씨를 비롯한 신입생 22명이 새롭게 등록했으며 기존 재등록생 10명도 함께 훈련에 참여한다. 또한 이날 수료예배에서는 조남우 씨 등 졸업생 15명이 과정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목원선교훈련원은 그동안 미션 익스포(Mission Expo), 해외 집중훈련, 합숙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 현장성과 영적 훈련을 함께 강화해 왔다. 학생과 성도들이 같은 비전 안에서 교제하고 성장하도록 공동체 중심의 교육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에서도 의미



목원대 선교훈련원 1학기 개강·수료예배 진행 사진. ©목원대

가 있다.

이기현 목원선교훈련원장은 “선교훈련원이 단순한 교육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점을 이번 개강·수료예배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며 “목원대 선교훈련원에서 시작된 훈련이 지역과 세계를 향한 사명으로 이어지도록 말씀과 기도 위에 선 실천적 선교 인재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선교는 특별한 몇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는 모든 기독교인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목원선교훈련원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인재를 세우고 교회와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귀한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지동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이상일 교수의 영국교회 이야기

7. 찬양대

영국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좋았던 점 중의 하나는 찬양대의 훌륭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몇몇 교회 찬양대는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찬양대 수준과 비슷하지만, 많은 교회 찬양대의 수준은 전문 합창단에 가까웠다. 아마도 필자가 큰 교회 위주로 방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성공회 대성당 찬양대의 실력은 모두 뛰어났다. 전문 음악감독이 있고 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성당의 음향이 훌륭하여서 더 좋게 들리는 것 같다. 성공회 예전에서는 찬양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전을 고수하는 한 찬양대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프라노 파트를 맡는 코리스터(chorister)의 소리는 들을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보다 소년들의 노랫소리가 더 듣기 좋았다. 고음이 많고 어려운 곡을 10살 내외의 소년 코리스터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부르는지 코리스터는 다른 나라, 다른 교단에서는 보기 힘든 영국 성공회의 훌륭한 전통이고 유산이다. 그러나 에든버러에서 본 최고의 교회 찬양대를 꼽으려면 세인트 자일(St.



이상일

Giles) 장로교 대성당의 찬양대를 꼽겠다. 이 찬양대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연습한다. 필자가 연습시간에 갔을 때에는 모두 20명의 대원이 참석하였다. 대원들의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다. 어떤 대원은 50년 이상 이 교회 찬양대원으로 있었다고 한다.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소리가 대성당에 가득하였다. 워낙 건물의 울림이 좋고 노래를 잘하여서 마치 프로 합창단의 연주회에 온 것처럼 감상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대원이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다. 적어도 몇 명은 프로인 줄 알았다고 하였다. 영국에는 아마추어 합창단원들의 수준도 높다고 지휘자가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이 찬양대의 지휘자는 에든버러에 있는 네이피어(Napier) 대학에서 지휘와 음악사 등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한 주간의 반 정도는 이 교회에서 일한다. 그날 많은 곡을 연습하였는데, 스위스의 《마니파카트(Magnificat)》를 제외하고는 다 영국인의 곡인 것 같았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중간의 커피타임 외에는 줄곧 서서 연습하였다. 에든버러 구시가지의 그레이프라이어즈(Greyfriars) 장로교회 찬양대는 한 달에 한 번만 평일에 연습한다. 대원수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원의 절반 정도는 60세 이상으로 보이는데도 각 파트의 소

리가 잘 훈련되어 있었다. 80분 동안 8-9곡이나 연습하였다. 아무리 전에 불러 보았던 곡이라도 음정 잡기가 어려울 텐데 다들 잘 불렀다. 놀라운 점은, 모든 곡을 무반주로 연습하였다는 것이다. 이 교회에는 반주자가 따로 없고 지휘자가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하다. 첫 음반 지휘자가 확인해 주고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불렀다. 16세기 곡에서부터 20세기 곡까지 다양한 전통 성가합창곡을 불렀다. 지휘자의 직업은 엔지니어이고 주말에만 교회에서 일한다는 데도 음악성이 상당하였다. 에든버러의 세인트 존(St. John's)의 성공회 교회 찬양대는 영국에서 보기 드물게 매 주일 세 번의 예배에서 노래한다. 9시 반의 아침기도회(Choral Matins), 10시 반의 성찬식 예배(Sung Eucharist), 저녁 6시의 저녁기도회(Evensong). 필자가 참석한 어느 주일의 아침기도회에서 찬양대가 《테 데움(Te Deum)》을 비롯하여 합창곡을 세 곡 불렀고, 시편가와 찬송가를 부를 때 화음을 넣어 불렀다. 10시 반 예배와 저녁기도회에서는 다른 곡들을 불렀다. 합창곡 한 곡만 부르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찬양대와 비교된다. 또 대단한 것은 대원들 모두가 무보수 자원봉사자라는 것이다. 정말 엄청난 헌신이다. 연주

곡의 수준도 높고 소리의 울림과 밸런스가 좋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연습하는데, 필자가 가보니 7시 40분쯤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쉬 없이 거의 계속 서서 연습하였다. 여자대원은 남자대원이 간 후에 30분 더 연습하였다. 이들의 열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에든버러 구시가지의 올드 세인트 폴(Old Saint Paul's)의 성공회 교회도 매주 목요일 7시 반부터 9시까지 연습한다. 연습에 참석해 보니, 기도나 발성연습이나 몸 풀기 과정 없이 바로 연습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휴식시간도 없었다. 20명이 모였는데, 특이하게도 4-5명 정도 외에는 모두 20대로 보였다. 이 교회 음악감독이 에든버러대학교의 오르간/하프시코드 전공 교수로서 대원들의 대부분이 이 대학교 학생인 것 같았다. 장학금을 받는 대원이 네 명 있다고 한다. 그들도 다 음악 전공생이 아닌데도 찬양대 음악 실력이 훌륭하였고, 연습곡은 전문합창단 레퍼토리 수준으로 높았다. 여덟 곡을 연습하였는데, 모두 미사곡, 칸타타, 모테트, 앤섬이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찬양대가 주로 부르는 미국의 쉬운 성가곡과 달리 어려운 전통 성가곡이다. 스카를라티(Scarlatti)의 "Exsultate 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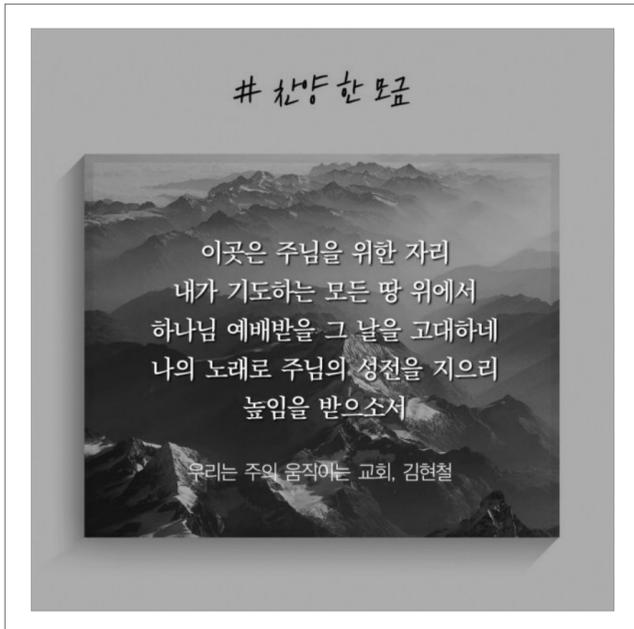
브리튼(Britten)의 Missa Brevis 보일(Boyle)의 Magnificat, Nunc dimittis 탈리스(Tallis)의 "If Ye Love Me" 브루크너(Bruckner)의 "Locus Iste" 브람스(Brahms)의 "Geistliches Lied" 버드(Byrd)의 Mass 보이스(Boyce)의 "O Where Shall Wisdom" 매주일 오전미사에서 세 곡, 저녁기도회에서 세 곡쯤 부르기 때문에 연습할 곡이 많았다. 대부분 전에 불러본 곡인 것 같지만, 다들 사랑스러워서 짧은 시간에 많은 곡을 연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성공회 예전에는 찬양대의 비중이 큰 반면에 회중의 역할이 적어 때면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특히 저녁기도회는 사제와 찬양대 중심이어서 찬양대는 시편을 비롯해서 많은 노래를 부르는 반면 회중은 많아야 찬송가 한 곡을 부른다. 찬송가 부르는 순서가 없기도 하다. 사도신경과 축도문만 사제랑 같이 읽는

다.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으로 찬양과 예배 운동이 일어난 데에는, 예배음악이 찬양대와 음악가 중심이고 회중은 수동적이고 소외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회중이 능동적인 찬양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찬양대 음악은 무척 훌륭하지만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답답함을 필자도 여러 번 성공회 기도회에서 느꼈다. 에든버러에는 훌륭한 교회 찬양대가 여럿 있지만, 찬양대가 없는 교회들도 많다고 한다. 왕립교회음악학교(The Royal School of Church Music)의 스코틀랜드 지역 교육 담당자인 크리솔름(Sheila Chisholm)은 에든버러 전체 교회들 중의 15퍼센트에만 찬양대가 있다는 말을 해 필자를 크게 놀라게 하였다. 매주 연습에 참석하려는 이가 적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녀는 대원들의 헌신(Commitment)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교회도 영국교회의 이런 점을 닮아갈까 두렵다.

◆ 이상일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회음악학과 신학대학원을 마친 후 미국 Southwestern 신학교에서 (M.M./Ph.D.)과정을 마친 후 2009년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예배의 자리에 서라



9회말 대역전 홈런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곳에 대한 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수세에 몰린 팀이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에 승부를 뒤집는 짜릿하고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는 그 순간. 그것이 대역전의 미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년전, 심지어는 수십년전의 경기였지만, 9회말에 역전 홈런을 친 선수 이름을 아직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9회말 굿바이 홈런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대역전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대역전을 모든 인류에게 선사하셨습니



공인 목사

다. 죽음이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보통사람들에게 (부활)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대역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기 때문이며,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과 승천의 대역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불순종의 반란)은 시작됩니다. 부활 승천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는 것은 본사람이 500명 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굳이 믿음을 동원하지 않아도, 부활을 알고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마가의 다락방의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나머지 380명은 어디갔

을까요?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대역전)을 목격하고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은 1/4로 줄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순종과 불신의 자녀인 (인간의 반역)입니다.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대역전)을 경험하고도 예배와 기도에 자리에 오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한 모습, 믿음 없음... 그런데 그 사라져 버린 380명에 여러분이 속하지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도 같은 역전을 경험하고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라진 사람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부활을 보고도 사라져 버린 380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 세상을 바꾼 120에 속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역전의 용사, 믿음의 용사는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의 대역전)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 공인

도전, 열정, 독서, 여행, 예배, 추진력, 연애상담, 영화 보기 및 만들기, 디자인, 스마트폰 그리고 영리한 생각 실천하기 등등 이런 것에 익숙하다. 건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침신 신대원, 미국 리버티 신대원, 한양대 MBA 등을 공부했다. 가끔 영상을 만들어 상 받고 하고, 작사해서 찬양을 만들기도 했다. 교회의 변화를 소망하며 '교회혁명: 변혁적 교회'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기도 하고, 젊은이를 사랑해서 KOSTA에서 강의하기도 한다. 현재는 찬양도 잘 못하면서 지구촌교회 예배 목사로 섬기고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이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잭 윌리엄스, 'Jesus Loves' 디럭스 앨범 발매

컨트리 스타 토마스 레트와 협업으로 화제 곡 추가된 'Jesus Loves' 디럭스 앨범 공개

그레미상을 두 차례 수상한 기독교 음악 아티스트 잭 윌리엄스(Zach Williams)가 최신 정규 앨범 'Jesus Loves'의 디럭스 버전을 발표하며 새로운 음악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타너셔널(CDI)은 잭 윌리엄스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스튜디오 앨범 'Jesus Loves'의 디럭스 에디션에 공개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번 앨범은 기존 음반에 새로운 곡과 협업 트랙을 추가한 확장판으로, 윌리엄스가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은 앨범으로 평가된다.

이번 디럭스 앨범에는 컨트리 음악계의 슈퍼스타 토마스 레트(Thomas Rhett)와 같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 벤 풀러(Ben Fuller) 등이 참여하며 음악적 협업의 폭을 넓혔다.

'Jesus Loves'는 2025년 처음 공개됐을 당시 윌리엄스의 커리어 가운데 가장 높은 첫 주 스트리밍 기록을 세우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디럭스 버전은 이러한 성공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확장 프로젝트

이다. **◆토마스 레트 협업 포함한 신규 트랙 공개**

이번 디럭스 에디션에는 기존 앨범 트랙에 더해 여러 곡의 신곡과 새로운 녹음 버전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받는 곡은 'Say A Prayer'로, 컨트리 음악 히트메이커 토마스 레트와의 첫 협업 곡이다.

또 다른 곡 'Wait For Me'는 벤 풀러와 공동으로 작곡한 곡으로, 현재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If God Lives Here'는 새롭게 녹음된 스튜디오 버전이 추가됐으며, 2025년 레드록스 원형극장(Red Rocks Amphitheater) 공연에서 녹음된 라이브 버전도 함께 수록됐다.

◆기존 인기곡과 함께 확장된 앨범 구성
디럭스 에디션에는 기존 앨범에서 이미 사랑받았던 곡들도 그대로 포함됐다. 타이틀곡 'Jesus Loves'를 비롯해 'Killed A Man', 'Hated' 등 주요 싱글이 수록돼 있으며, 형제 자매 트리오 CAIN이 참여한 'Church Kids' 협업 곡도 함께 담겼다. 잭 윌리엄스는 남부 록(Southern



그레미상을 두 차례 수상한 기독교 음악 아티스트 잭 윌리엄스(Zach Williams)가 최신 정규 앨범 'Jesus Loves'의 디럭스 버전을 발표하며 새로운 음악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EPIC

rock)과 컨트리 사운드를 기반으로 신앙 메시지를 담은 음악으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다. 그는 "이번 앨범이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초대와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윌리엄스는 "나는 항상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며 "이 앨범은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초대와 같은 작곡이며 어떤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어와 출판 활동까지 이어지는 음악 행보

이번 디럭스 앨범 발매는 윌리엄스가 바쁜 공연 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윌리엄스는 지난해 가을 'Revival Nights' 투어를 진행했으며, 올해 봄에는 베테랑 록 밴드 서드 데이(Third Day)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30개 공연 규모의 'All The Hits Tour'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약 15억 회에 달하는 온디맨드 스트리밍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플래티넘 싱글 4곡과 골드 앨범 2장을 인증받았다. 특히 컨트리 전설 돌리 파튼(Dolly Parton)과 함께 부른 'There Was Jesus' 듀엣곡은 골드 인증을 받았으며, 판도와 차트에서 1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음악 활동과 더불어 윌리엄스는 최근 출판 분야에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담은 회고록 'Rescue Story'를 출간했으며 어린이 책 'A Little More Like Jesus'도 발표했다.

'Jesus Loves' 디럭스 앨범은 현재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다. 최승연 기자

모래 위에 피어난 새로운 소망

소망교도소, 샌드아트 공연 열려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는 최근 열린 화요문화행사에서 '프로덕션 샌드공감' 박은수 대표와 샌드아트 전문강사 '모래나무' 김미향 작가가 샌드아트 공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는 문화-예술을 통한 수행자들의 심성순화와 변화를 위해 매주 화요일 문화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330여 명의 수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넬라 판타지아와 '라이온 킹 메들리'를 배경으로 모래를 활용한 감성적 표현과 스토리텔링이 펼쳐져 깊은 감동을 전했다.

샌드공감 박은수 대표와, 모래나무 김미향 작가는 "모래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참석한 수행자가 직접 모래로 그림을 그리며 샌드아트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돼, 단순한 관람을 넘어 문화예술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 됐다.

참여한 한 수행자는 "모래 위에 새로운 그림이 지워지고 다시 그려지듯, 내 마음에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승연 기자



김미향 작가가 샌드아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소망교도소

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도 매년 소망교도소를 찾아주시는 샌드아트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하며 "모래로 그려내는 아름다움을 통해, 수행자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중심 비영리 민영교도소로 수행자들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일산광림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한마음(김승룡)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성락성경-지형은 30 생명의 말씀 안양서부-전승환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404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새예덴의 언약 (소강석)(929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2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4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한국중앙-임서순 50 생명의 말씀 용인비전-신용수	10 류영모 목사의 멋진 이야기 20 행복한 쉼터 LA새생명비전(강준민) 50 행복한 쉼터 왕성 (김요나)	30 휴먼네컷(38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90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5회)	00 포도원교회 주일예배실황 송병렬 목사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0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다규 더 로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3월 13일 20 [말씀] 이재훈 목사(구덕교회)(167회)	00 하나님의 음성(184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연)(3460회) 레위기 11강	00 비전메시지 하남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9:00	00 백설기(60회)	00 사랑의 메시지 여의도침례 (국영호) 30 GOODTV 특별기획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날은 몇 월 며칠?	00 CGN 비전특강(676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5회) 50 아메리카로 오십쇼(5회)	10 새문개회소서(11070회) 영미술 작가	00 THE 공금(9회) 더 공금한 '어린이'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76회)
오후	10:00	00 어디까지 가요?(8회) 30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강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시토피아(9회) 12세	20 방주타GO!(3회) 50 선교마블 기도탐험대2(10회)	00 CBS NEWS 10 20 더 콜링(122회) 50 살롱 살롱(45회)	00 강연소 통5(63회) 생중 근목 운동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21회)
	11:00	00 한국교회를 논하다(578회) 50 김지연의 중독전쟁(36회)	00 행복한 쉼터 목길 (임재호) 30 행복한 쉼터 제주동중 (박창건)	10분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66회) 50 예수동행일기(15회)	00 율포원(719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50회) 찬찬영 목사 여덟 번째 4강 목중서신 1: 하나님의 사람들 30 김재원의 광야예찬(5회) 고통의 상징에서 희망의 징표로 지성호 지사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대치순복음-한별	00 GOODTV 뉴스 30 오병이어 금요성회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5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축교회)(228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본영 30 TV강단 만리현성경(조준철)	20 말씀의 창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50 말씀의 창 영안장로교회 양병목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동산-권성수/문대원 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0회)	00 예배실황 꿈의 (김학중)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24회) 2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24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27회) 20 통복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61회)	20 폴다보연(9회) 요셉 2: 시간의 주인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449회) 50 더 메시지 시즌5(18회) 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	00 노크토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366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문개회소서(11413회) 김여호수아 목사 1부	00분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 5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저녁	15:00	40 7000마라톤 스페셜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57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451회) 창세기 18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원주중부-김미열	00 사랑의 메시지 분당성교(윤귀현) 30 행복한 쉼터 송진 (권준호)	00 허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46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5회) 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교회)(634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9회)	00 내 삶의 행복(198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4회)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성경침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김신목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특독 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김자현) 40 아베스의 기도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14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8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98회) 50 행복다이어리(613회)	00 말씀의 창 아산라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설의 시간 장중현 목사 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50 신앙에세이	1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장중현 40 마음을 나누다 이삼점심	10 THE NEW 하늘빛항기(21회) 50 2026 KOSTA WORLD IN DAEGU(1회)	00 TV강단 약대(송규의) 30 TV강단 샘솟는(최병남)	00 김재원의 광야예찬(5회) 고통의 상징에서 희망의 징표로 지성호 지사 50 리버리즈 워십
	19:00	00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 용인기쁨의-정의호	00 사랑의 메시지 군포제일(권태진) 30 사랑의 메시지 새은혜 (황형택)	50 2026 KOSTA WORLD IN DAEGU(1회)	00 TV강단 김트(채성렬) 30 TV강단 베타나(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저녁	20:00	00 생명의 말씀 은평성경-유승대 30 생명의 말씀 포도나무-여주봉	00 더 메시지 10 예배실황 지구촌 (서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175회)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언지유 50 CBS 교회소식(1041회)	00 장중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지가 좋다(520회) 광야의 공금자 하나님을 만나다
	21:00	00 박세현의 크로스뷰(19회)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부 미라클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0회) 50 CTS뉴스W	10 행복한 쉼터 전주남성 (안호관) 40 GOODTV NEWS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신우연)(3460회) 레위기 11강 50 성경꿀팁 이것이 공금하다(45회)	10 이서 목사의 일야버린 복음을 찾아서(250회)
	22:00	20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강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오윤교회 금요철야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믿음의 씨앗, 교회교회 패밀리(1회)	00 CBS NEWS 10 20 율포원(718회)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71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근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1062회)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605회)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사본의 꽃 필 때	10 [퀵퍼런스] 선교로의 부르심(11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5회)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예덴교회)(891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Calling GOD(2449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시토피아(9회) 12세 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5 온누리 미래 & 가족 축제(1회)	10 새문개회소서(11070회) 영미술 작가	00 새예덴 철야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21회)	00 더 메시지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00 2025 온누리 지역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 - 선택강의(10회)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195회)	00 신위의마를 말씀 (김영준)(277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42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버리즈 워십
	2:00	0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50 위대한 발걸음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경교회)(540회)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601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성교회 양승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 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69회)
	3:00	00 7000마라톤 스페셜 50 할링송	10 GOODTV 특별간중	00 Cross Conference (Undeafated)(9회)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102회)	10 새문개회소서(11412회) 배우 이자은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4:00	00 하나님의 손길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CTS 경건예배 잠경다리/유인환 45 박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비전성교 분당우리 (이찬수) 30 장상길 목사의 생명의 정앗비	10 [말씀] 박신용 목사(엘버린온누리교회)(288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김지철)(3864회) 전도서 17강 50 CBS 교회소식(1041회)	00 김재원의 광야예찬(5회) 고통의 상징에서 희망의 징표로 지성호 지사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